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77 1981년11월23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November 23,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NOV 25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통행금지 전면해제

36년만에 처음으로, 일부 취약지구제외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에서 이미합의

한국정부는 82년1월 1일을 기해 해방이후 36년동안 실시되오던 통행금지를 전면해제할 예정이다. 단, 휴전선지역과 안보 취약지구인 몇몇해안지역은 계속 통행금지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88년 하계올림픽을 대비, 취해진 조처이라고 풀이되고 있으며, 이 통행금지 해제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됐다.

여당인 민정당을 포함한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그밖의 소수정당 의원들은 19일저녁 회합을 가지고,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제안을 통과 시키기로 합의했다.

통행금지 철회안은 11월초 야당인 국민당에 의해 제안됐었다.

한국정부는 88년 하계올림픽의 서울유치가 확정된 뒤부터 통행금지 철폐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현재까지 통행금지 제외 구역은 제주도, 충청 북도 및 경주를 포함한 몇몇 관광명소등에 국한되어있다.

한국에 통행금지가 실시된 것은 45년 미군정에 의해서다. 미군정은 48년 총선에의해서 정부수립이 정식으로 되기까지 3년간 서울과 인천에 통행금지를 실시했다.

그후 한국전쟁(50~53년)동안 통행금지는 전국적으로 확대, 지금껏 내려오고 있다.

한국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美 基地철수 再確認 希, 내년초 協商시작

〈아테네-UPI〉 그리스정부는 16일 그리스로부터 미군기지를 철수시키려는 계획을 재확인 했다.

그리스정부 대변인은 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내년초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귀환한 콜럼비아號

飛行성과에 만족

지난14일 예정시간보다 일찍 궤도비행을 끝마치고 지구로 되돌아온 왕복우주선 콜럼비아호를 임시점검했던 미국항공우주국당국은 15일 콜럼비아호가 첫번째 궤도비행시보다 상당히 적은 기체손상을입었다고 밝히고 내년 3월 제3차 우주왕복비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콜럼비아호는 지난4월 첫우주왕복비행시 기체 표면에 부착된 3만1천개의 내열타일중 1백64개가 떨어져 나갔으나 지난 12일~14일사이의 2번째 왕복비행시에는 단지 12개밖에 상실하지 않았다.

미국항공우주국당국은 콜럼비아호가 두번째 이륙시에 첫번째보다 적은 압력을 받았기때문에 기체손상을 덜 입었다고 설명했다.

우주궤도 비행실험프로그램 매니저 잠 우주비행사인 도널드·스레이턴은 콜럼비아호의 2번째 비행은 첫번째보다 더 훌륭했다고 평했다.

첫번째 우주왕복비행과는 달리 콜래비아호는 두번째의 이륙과 착륙시 내열타일이 한개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기체를 점검했던 기사들은 콜럼비아호는 조종실옆 기체오른쪽에 있는 6개의 타일이 외부칠이 벗겨져있고 또다른 6개의 타일에 약간 흠이 가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교포들 한화 불법유출

뉴욕서 1천원당 90¢에 불과

토론토서는 $1.40까지, 거래는 적어

본사 뉴욕지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불법으로 원화를 대량 갖고 미국에 온 교포들이 뉴욕의 환전상(Money Changer)에서 한국내 암시장의 환전율보다 높은 비율로 달러와 바꾸는 사례가 늘고있다.

뉴욕지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이민온지 1주일된한 교포부인이 12일 후러싱에 사는 한친구의 소개로 맨하탄 5th Ave.에 있는 미국인환전상 GEAK- PERRA에서 원화 1백6 6만원을 미화 1천4 백94 달러로 바꿨다.

이 외환거래소는 교포가 갖고온 원화를 1천원당 90센트로 바꿔주고 환전총액의 1%인 14달러94센트의 수수료까지 받았다.

이여인은 그후 환전상이 적용한 환율이 지나치게 높은것을 알고 원화를 되돌려 받으려고 했으나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GEAK-PERRA의 매니저인 John Flynn씨는 본보의 문의에 이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가는 한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각국에 90개 지점을 갖고 1백20개종류의 외환을 교환해주고 있다는 GEAK-PERERA환전거래소는 뉴욕시내에 수개의 사무실을 갖고 있으며 LA와 샌프란시스코등 서부지역에도 한인고객이 많다고 Flynn씨는 말했다.

그에 의하면 자기회사에서 사들인 원화는 주로 미국내에서 판매하지만 다팔리지 않을 경우 홍콩의 외환시장에 넘기고 있다는것이다.

대량의 원화를 갖고들어와 미국내에서 달러화로바꾸는 교포들이 늘고있다는 사실은 최근 본국정부에서 불법외화유출방지를 위해 공항검색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의 달러화 밀반출에서 한화의 불법유출이란 새수법이 성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으로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한편 토론토에서도 이와같은 [illegible] 환전상들이 여러곳있다.

베이스트릿에 있는 환전상 덕·파레라는 20일현재 1천원당 $1.40(캐나다달러)로 바꿔주고 있다. 물론 수수료는 1%이다.

20일현재 한국외환은행에서는 1천원당 캐나다달러로 $1.72, 미국달러로 $1.50에 거래돼 토론토가격은 약 20%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것은 한국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약 10%의 프레미엄보다도 훨씬손해이다.

환전상 트래로씨에의하면 한국인손님은 많지않고 서양인들이 한국여행중 남은돈을 바꿔가고 있다고한다.

◁금주의 행사▷

— 11월23일~29일

◇11월26일(목) 하오6시 한인실협인협회 총회
곳 : Don Valle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
연락처 : 752-7771

◇11월28일(토)하오1시~4시 토론토교회연합학생회 대항 성경퀴즈대회
곳 : 제일한인장로교회 본당 (963 Pharmacy Ave. Scar.)
연락처 : 626-5382(Mr. 공) 421-2469(Mr. 조)

◇11월28일(토) 하오6시30분~새벽1시 경복동창 크리스마스 파티
곳 : Don Valle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
연락처 : 275-0035

수퍼마켓 가격경쟁 계속

식료품 가격 대동소이

"당신은 요즈음 정말로토론토의 주요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 있다"온타리오 고든·워커 소비성장관의 말이다.

소비성의 조사결과 주요 수퍼마켓의 가격인하는 말뿐이 아닌 실제라고 워커장관은 17일 밝혔다.

토론토시내 3개의 주요 수퍼마켓 체인에서 10월 1개월간 72개의 품목에대한 가격조사는 종전보다 3.6%~5.8%의 가격인하를보였다.

이번 조사한 72개 품목들은 고기, [illegible] 채소, 과일, 우유제품등 일반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사는품목들이다.

워커장관은 "만약 이들이 가격경쟁을 벌이면서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할 경우 강력한 조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까지 그러한 징조는 없다는 워커장관은 오는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미라클 푸드·마트는 2000품목 이상에 대하여 20%까지 가격인하를 실시한다고 공언했다. 이에따라 로블로, 도미니언등 다른 수퍼마켓체인들이 미라클과 경쟁, 가격인하를 단행하였다. 미라클은 가격인하를 하는대신 매주실시하던 수퍼·스페샬을 없애고 무료이든 플라스틱쇼핑 백에는 4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성은 조사결과 가격전쟁이 붙기전보다 도미니언은 5.8%, 로블로 3.6%가 각각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지난주 2차 가격조사결과 로블로, 미라클은 추가로 1%씩 더 떨어졌고 도미니언만 0.4% 올라갔다.

그러나 72품목들에 대한 3개의 주요 수퍼마켓 체인의 총가격에는 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가격이틀려도 1, 2¢가 고작이라고소비성 관계자가 덧붙였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마닐라 참사—국제영화제 개최장소로 신축중인 건물이 내려 앉아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필리핀 사고현장 〈AP〉

극장무너져 26명 참사

필리핀 영화관 신축중

〈마닐라-UPI〉 17일 상오 2시께 마닐라만의 개간지에 신축중이던 영화센터중 6층짜리대형극장이 무너져 일하던 인부 26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당한 참사가 발생했다.

영화센터는 마르코스대통령부인 이멜다여사의 지시에 따라 국제영화제를 위해 새로 건축중이었다. 국제영화제는 내년1월18일부터 29일까지 이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이사고후 필리핀정부는 뉴스를 통제, 15시간후에야 사망자는 3명이고 부상자는 34명이라고 대폭줄여서 발표했다.

이멜다여사는 최근 미국을 방문, 로버트 레드포드, 찰튼 헤스턴, 소피아로렌, 알리 맥그로우등 유명배우들을 필리핀국제 영화제에 초청했었다.

캐나다 주택난 심각

정부의 적극지원 시급

캐나다도시개발협회(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Canada)는 10일 정부가 내년예산에 아파트건축촉진에 대한 조처를취하지 않으면 캐나다는 내년 심각한 주택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협회(UDI)는 성명서에서 만약 아무조처가취해지지 않으면 모기지 이자율 인상으로 주택장만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가족들은 그들 수입의 40%를 아파트세로 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UDI는 현재 주요도시에서 $350에 렌트하는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새 아파트는 높은 이자율때문에 $750에 렌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DI 보고서에 의하면 유휴율(Vacancy rate)은 지난 4월현재 평균 1.8%에 달하고 있다. 토론토, 뱅쿠버, 빅토리아, 헬리팩스같은 주요도시들의 유휴율은 전국평균보다 더 낮다.

레건이 弔意 나타내 윌리엄 홀덴 사망에

〈워싱턴-UPI〉 레건대통령은 16일 배우 윌리엄 홀덴의 별세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꼈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다.

16일 자기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된 홀덴은 레건대통령이 낸시부인과 결혼할때 들러리를 서주었었다.

◇윌리엄·홀든

브라운知事 애인이 1千弗짜리 모금파티

〈말리부-AP〉 지난 수년동안 자주 에드먼드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의 데이트상대가 되었던 록스타 린다·론스태트양이 금주말 말리부자택에서 주지사를 위한 1인당 1천달러의 모금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브라운주지사의 한 보좌관이 12일 밝혔다.

15일의 모금파티에는 주로 산업계인사들과 브라운주지사의 지지자들 그리고 영화배우 로버트·블레이크가 참가하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초청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파티에 참석할수 있다고.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마돈나
454 BLOOR ST.W
B 536 1692
R 245 3539

김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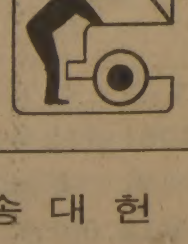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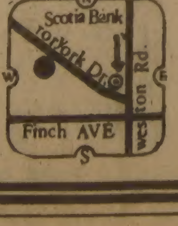
1981년
성탄및 망년
파티에의 초대

분주다사 하였던 1981년 한해동안도 동창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모두 평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동창회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동창들과 husband께 심심한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며, 다아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저 이화동창 모두가 함께 자리를 같이하는 성탄및 망년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하오니 많은 동창께서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12월4일(금)오후7시
장소 : DON VALLEY HOLIDAY INN (GALLERY SUITE) 1250 EGLINTON AVE EAST
회비 : COUPLE $40.— SINGLE $20.—
경품 : 여러 동창들의 너그러운 호의로인해많은 경품들이 마련되어 있음.
※BUFFET DINNER 예약관계로 참석여부를 조속히 아래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자(Mrs. 신)494-4906
송영덕(Mrs. 임)293-4949
명시사항 : HOTEL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티시일이 지난회보에 알려드렸던 12월5일(토)에서 하루전날인 12월4일(금)로 바뀐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고동문회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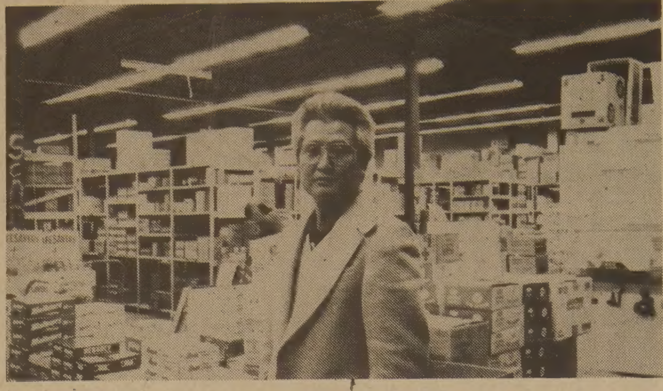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무도진수와 지도권위로
1. 고상한 인격도야와 신체단련을 시킨다
2. 강한 개성의 확립과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3. 위기를 무난으로 피하는 자기능력을 키워준다
4. 문제아 선도및 학업능률을 향상시킨다
※한국인 자녀를 특별할인우대 · 한국인사범 직접지도
KYONG LEE TAEKWON-DO CENTRE
H.Q.: 615 YONGE ST., at Isabella, Toronto (416) 929-5511
NORTH: 2281 YONGE ST., at Eglinton, Toronto (416) 483-4002
EAST: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Scar (416) 759-2500
OVER ALL CALL: (416) 962-300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연합상사 우선고객모집

혜택은 많으나 신용도 관건



◇우선고객을 모집하고 있는 연합상사의 내부와 대표이사 김현모씨

최근 각 교민신문에 게재된 한 교민도매상의 우선 고객 모집광고가 교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인연합상사(대표이사 김현모)는 시중은행을 통한 정기 예금(Term Deposit)형식으로 고객의 자본을 구매력확보에 이용, 그에 따른 이익을 고객들에 할당함으로써 기업이윤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하고자 우선고객을 모집한다고 광고에서 밝혔었다.

천불, 5천불, 만불짜리 예금을 한 우선고객은 예치분에 대한 은행이자를받는것 이외에 연합상사에서 주는 보너스이자 1%와 물품구입시 일반고객에 우선하는 싼 값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연합상사측의주장이다.

연합상사는 우선고객이 예치한 자금으로 팝 초코렛등 "전략상품"구입, 대량 _으로 좋은 딜을 따내 우선고객에게 싼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은행은 우선고객 지망자가 예금신청시 각서를 받아 예금명의는 본인이름으로 하되 IN TRUST FOR (주)한인연합상사란 단서를 붙여 한인연합상사로 하여금 물품구입시 예금액한도내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구좌에 집어 넣는다.

연합상사측이 이 특별구좌에서 돈을 꺼내쓸때는반드시 물품구매 증빙서류(상품대전 지급수표및 송장등)을 첨부해야 하므로 이 돈이 전략상품구입이외의 일반경비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연합상사측은 밝혔다.

현재 약 20여명의 교포 비지네스맨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왔다.

고객이 해약을 원할경우 언제나 은행과의 예금해약이 가능하며, 연합상사는고객의 요청에따라 현금이나 상품으로도 돌려주나 이럴경우에 대비한 법적효력을 갖는 계약서를 작성하진않는다.

연합상사측은 만약의 경우 연합상사가 파산할 경우 우선 고객이 받을수있는 보호조치가 무엇인가는 질문에"지금까지 착실히성장해온 비지니스인 우리회사를 믿고 한인끼리 서로 도우며 커 나가자는것이우선 고객모집의 취지인 만큼 믿고 맡기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만일 회사의 신용도를 알아보고싶은 사람은 현재 거래은행인 Bank of Montreal 의 Etobicoke Central Branch로 조회 해 볼 수 있다 고 답변했다.

연합상사는 또 1년이상 거치한 고객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한 이자외에사은금리로 불입금의 1% 를 가산지급하며 만기전 해약으로 인한 이자율의 변동은 해당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동사는 Bank of Montreal 이외에 한인신용조합 또는 한국외환은행으로 곧 변경 위임할 예정이다.

캐나다 외환은행의 이수신전무는"은행으로서는 아무 손해도 없다. 연합상사의 신용도와는 별개문제로 고객들의 예금이 담보 이므로 언제나 이 한도액 내에서 대출, 대출자는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나온책>

합작집「구름다리」

한국적 정서와 문학을꾸준히 지향하고 있는 토론토의 대학생 문학써클「구름다리」의 합작 제4집이 나왔다.

이 책의 특색은 각자 자기 글씨로 자작시, 수상, 꽁뜨등을 써서 그대로 프린트한 자기 필적 작품집이라는 점이다.

10월말 발행으로 나온「구름다리」제4집에는 10명의 동인작품 시 14편, 꽁뜨 4편, 수상 1편에 10월의 감상시로「편운재」(조병화),「STORY」(Leonard Cohen)의 2편이 찬조출품으로 실려있다.

국배판(7치×10치) 35면 비매품.

한국일보
533-2361

인프레 억제 위한 예산

1981년도 캐나다 예산발표에 이어

엄승용(경제학박사)

◇엄승용 박사

지난 11월12일「맥케큰」캐나다 재무장관이 국회에서 발표한 1981~1982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의 초점은 긴축기조를 통한인플레억제에 있음을 재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확장정책을 통한 고용및 생산증대를 피하기보다는 지출억제를 통한 물가안정의 바탕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산발표 이후 각계의반응을 간추려본다면 소비자 실업계, 정계등에서는 미온적이고 현실문제를 도외시한 예산이라는 비판이지배적이다.

비판의 요점은, 첫째, 높은 이자율로 가장 희생을 당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대한 구제책이 미약하고 결여되어 있다는 점.

둘째, 8.0%를 육박하는 국내 실업률을 개선하기위한 정부시책이 결여되었다는 점.

세째,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감축시킴으로써 사회복지 후생면에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점등으로 볼 수 있다.

예산골자를 요약해 본다면,

(1)정부예산 적자를 현 133억달러에서 1982~1983 회계년도에는 105억달러로 대폭 줄인다.

(2)조세공평원칙에 입각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면제혜택규정을 대폭 삭제한다.

(3)법인기업체의 자본상각을 통한 세금혜택을 줄인다.

(4)앞으로 5년간 약 57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시킨다.

(5)주택소유자에 대한 구제책으로서는「모기지」지불액이 총소득액의 30%를 초과하는 자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이자 연불형식의 혜택을 정부가 보증한다.

(6)아파트 건축업자에게는 무이자 형식의 주택건축자금(신규주택)을 대여하도록 조처한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의특징은 중간소득자의 세금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극적인 예산이라는데 있으며, 어떤 특별한 획기적인 시책요소가 결여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야당과 소비자로부터 비등하고 있는 고이자율(특히 주택모기지)로부터의 구제책이 미온적이라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필자 : 알버타주정부 근무)

◇불국사에 들렀다가 절음식으로 오찬을 들은 후 석굴암에 들러 신라예술을 경탄하는 트루도 수상.

트루도수상 방한수행 100시간 ⑦

어린이들과 인디안식 악수

불국사에서 산나물로 오찬

일행이 부산 UN군 묘지에 도착하자 수상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캐나다용사 379명의 묘소앞에 헌화한후 깊은 묵념을 올렸다. 국군의날 행사에초대된 캐나다군 참전용사「파라비」예비역 육군준장 및 8명이 때를 맞추어서이곳에 미리도착, 수상을 환영하자 반가워하며 잠시환담한후 캐나다군 묘소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세밀히살피고 전사자의 이름을 읽기도 했다.

우린 곧바로 대기중인헬기를 탔다. CTV-TV 기자와 함께 나는 5번기에탑승했는데 거기엔 다른 한국인 기자들과 함께 동승하게 되었다. 반가워서 인사를 한후 어느신문사에서 오셨읍니까 하고 물었더니 서울신문사라고만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MBC싸인이 붙은 TV카메라를 들고있다. 그쪽분은 어디방송국이십니까? 했더니 카메라만 쳐들어보일뿐 아무도 말이없다. 왜 모두들 말을하지 않을까?

우린 서로 이방인처럼침묵의 비행을 계속하고지상만 내려다 보았다. 우리가탄 헬기는 공군제206 항공대에 소속되었고 대위와 중위 둘이서 조종을 했다.

12시반이 지나서 헬기는월성에 착륙했다. 곳곳에 캐나다인들이만든 수상환영현수막이 걸려있고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건물앞에 대형으로만든 환영싸인이 붙어있었다. Nuclear Power Plan Candu PHW 600 M Volume I에 대해서 수상일행과 기자들에게 실내에서 슬라이드로 약15분간, 실외에선 직접 건물을 가리커 가면서 야외 브리핑을 받았다. 브리핑이 끝나자 수상은 월성주재 캐나다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환영장소로 달려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피에르」,「피에르」하며 손에손에 캐나다기를 들고흔들며 열열히 환영한다. 이곳 월성의 캐나다인구는470명, 102가구로서 20동의아파트가 있고, 48개의 독신숙소가 있다. 대부분 1년안팍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캐나다에서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테니스·코트를 이용, 특별히 설치한 단상에 수상은 올라서서 지금까지 찾아볼수없는 싱싱하고 매우 밝은 표정으로 연설을 한다. "1세기전 캐나다 선교사의 전도로 시작된 한가의 관계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까지 발전했다"면서 한국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캐나다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아침에 KBS에서 대법원판결에 실망했다면서 침울했던 때와는 달리 우리가 7 : 2로 이겼다고 자신있게 연설했다.

마치 당신들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노라고 말하는것처럼 연설은 활기차고 그 박진감이 월성을 뒤흔드는것 같았다.

연설이 끝나자 현장기술자들과 일일히 악수한후줄밖 라인에서 기다리고있는 열광하는 캐나다인들의 박수속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앞에 닦아섰을때는 넌 몇살이냐고 묻고 싸인해 주었다.

손을 내민 어린이들에겐 서로 손바닥을 내려 번갈아 치며 인디안식 악수도 해준다. 한 기술자 부인에게 고생이 많지않느냐고물으니 그 부인은 처음 6개월동안은 어려움이"많았다고 대답하자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조크를 하기도 했다. 어떤 여인은 키쓰세례를 퍼붓기도 했고, 또다른 여인은 "누가 트루도열풍이 사라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어떤 어린애는 큰애들에게 밀려서 싸인을 못 받자 울어대고 야단이다.

예정시간 40분을 초과했어도 수상은 이곳을 떠날줄을 모른다. 옆에 있던보좌관이 수상에게 시간을 가르키며 독촉한다. 뜨겁고 열렬하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환영이다. 수상이 멀리 사라진후에도 보이지않을때까지 계속 캐나다기를 흔들며 수상의 이름을 부른다. 나는 수상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수상의 말없는 눈망울은초롱초롱 빛나고 월성에 온것을 퍽이나 만족스러운표정으로 기뻐한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 옴을 느낀다. 나는 한국인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수상의 일거일동에 많은 것을 배웠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온다.

기내에서 수상을 세일즈맨이라고 비난하던 기자들도 나를 쳐다보곤 자기들도「트루도」방문의 참뜻을 알겠다고 했다. 수상이 애당초 계획했던 다른나라들을 취소하고 굳이 한국을 방문한데는 이처럼 큰의의가 있다고들 한다. 2시쯤되어 바삐 헬기를 타고 경주를 향했다. 약 20분쯤지났을까 공중에서 보는 불국사경내는 잘 정돈되어있었고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헬기 착륙지점부터 불국사경내까 지경주시에서 관광안내원이 차내에서 영어로 설명을해준다.

모두들 피로해서인지 귀담아 듣지않는것 같다. — 이렇게 강행군하면 우리모두 녹아웃 되겠다면서.

필리핀등 다른나라들의 방문계획이 취소된 것은 퍽 다행이라고들 했다.

수상은 자신의 희망에따라 주지승과 4명의 승려와 함께 사찰내로 들어가 승려들과 함께 산나물등 전통적인 공양으로 오찬을했다.

우리들은 불국사8대문 바로앞 잔디밭에 원형으로 돗자리를 깔아서 미리 준비된 장소에서「코오롱」사에서 선발된 미인여직원들의 써비스를 받으면서 점심을 들었다.

식사는 나무도시락에 준비되었으며, 메뉴는 김밥, 생선튀김, 만두, 햄, 닭고기 튀김, 생선조림, 생선계란부침, 무우조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오이무침, 김치였고 음료수는 차와 코카콜라가 준비되었다.

식사후에 경주시에서 마련한「신라 人面瓦當」목거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人面瓦當(인면와당)은 1934년 경주 흥륜사에서 발견된 것으로틀에 찍어 다량으로 만드는 기계적인 일에 싫증을 느낀 어느 공인이 일손 쉴틈에 문득 빚어만든 작품이라고 그진가를 설명했다. 보기엔 별거 아닌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구름을 헤치고 얼굴을 내미는 보름달처럼 고요하게 웃음짓는 여성의 모습과도 같다고 했고, 꾸밈도 없고 과장도 없는 소박한 웃음속에 어머니의 따스한 감정이 넘쳐흐르는것을 상징한다고도 했다. 모두들 의미가 많다고 해서 더 살수는 없느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한다.

수상은 주지승 김월수스님으로부터 108의 번뇌를 뜻하는 염주를 선물로 받았으며, 스님은 이 염주로 속세의 번뇌와고뇌를 잊으라고 했다.

식사후 수상은 불국사밑에서 윗쪽으로 경내사찰을 둘러보다 뱅쿠버에서 관광차 왔다는 젊은 연인들을 만나서 몇일이나 있었느냐, 관광 잘 했느냐고 잠시 묻고 있자 그옆에 있던 주지승이 나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디서 왔느냐고묻는다. 나는 오타와서 왔다고 했더니, 수상께서 오찬때 캐나다에 한번 들리라고 했다면서,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수상은 헬기로 석굴암착륙지에 도착, 미리 준비된 국산자전거를 타고서석굴암을 둘러본 뒤 다시 대구 포문 공군비행장에 도착, 오전에 이용했던 국무총리 전용기편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호텔에 돌아와 보니, 우리「풀」일행이 아닌 다른 기자들 일행은 판문점과땅굴을 둘러보고 벌써 도착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있어서 사진필림과 기사를 상세하게 전달해 주었다.

글·사진 이태운 특파원

◇월성 원자로에 들러 캔두원자로 건설중인 캐나디안 건축기술자 가족들과 만나는 트루도 수상.

토론토한인합창단 제6회 연주회

헨델 작곡 오라토리오 메시야대연주회

지 휘 : 박 재 훈
독창 : 이 정 애(쏘프라노)
배 정 숙(알 토)
옥 인 걸(테 너)
신 경 욱(바 리 톤)
합창 : 토론토한인합창단
찬조 :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성가대
박주 : 노스-욕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프시코드및 오르간 유회자)

후원 : 토론토한인교역자협의회
일시 : 1981년12월4일(금) 저녁8시
곳 : 메시·홀(178 VICTORIA, TOR.)
티켇 : $12.00(A), $9.00(B), $6.00(C)
예매처 : 토론토종교서관(535-1920)
전화주문 : 222-4662(MRS. KIM)

주 최 : 토론토 한인 합창단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 $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교포사업체매입가격결정의주요개념

권리금, 굿윌, 프리미엄

홍순백 (워렌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선임예산 분석관)

GOODWILL이란 우리말의 회계용어로서는 성가, 영업권으로도 불리워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개념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GOODWILL이란 말 그대로 쓴다.

어떤 사업에서 생기는 영업 수입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업종의 평균 혹은 정상 수익률을 상회할 경우 사업주가 사업을 매도할때 이러한 이윤의 초과분을 미리 정상 판매 가격에 추가함으로써 매입한 사람의 자산에 GOODWILL이란 무형자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수익을 생성하는 지표나 수익창출력의 원천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에서 볼때 GOODWILL은 기업자산의 중추적인 요소를 이룬다.

이러한 GOODWILL은 권리금과는 달리 과거 오랜 시일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상황의 큰 변화가 없는한 대체로 양자가 상호 신뢰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쉽게 계산할수 있게 되어있다.

계산방법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1. 초과 이윤을 자본으로 환원하는 방법과 2. 총매매(지불)가격에서 영업자산(상품, 비품, 시설, 현금, 기타)하나 하나의 시장가치(REPLACEMENT COST)를 공제하고도 차액이 있으면 이것을 초과 이윤 때문에 생기는 GOODWILL로 보는 방법이다. 권리금의 계산 방법도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총매매 가격(부채 제외)에서 기업자산의 시장가치를 공제하는 GOODWILL 계산방법은 산만하기는 하나 편리하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GOODWILL 계산방법은 평균 이익률(OPPORTUNITY COST)이나 초과 이윤의 시한(기간)산정과 같은 주관적 요인이 게재되기는 하지만 초과 이윤을 합리적인 공식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수익대 자본 환원법(EARNING POWER CAPITALIZAITON)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먼저 기업의 역사적 실적을 근거로 평균 이윤을 계산하고, 다음 순자본(총 투자자산에서 부채와 GOODWILL을 차감한 것)에다 정상 이윤율(MINIMUM RATE OF RETURN)을 적용(곱하면)하여 정상이윤(혹은 최저 기본 이윤)을 산정한다음 이것을 먼저의 평균 이윤에서 차감하면 여기에서 이윤의 초과분이 생기게 된다.

이 초과 이윤을 다시 자본 환산율 GOODWILL이 무형자산이라는데서 생기는 위험도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최저 기본 이익률 (대략 2배−2배반 높게 책정하고 있음)로 나누어 주어 생기는 수치가 바로 GOODWILL이 되는 것이다.

기업의 평균이익−정상이윤(순자본×정상이윤율)=초과 이윤액÷자본 환산율=GOODWILL

◉투자가의 취업(고용효과)에 의한 수입증대로서의 권리금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권리금에는 투자가의 고용내지 취업이란 특수여건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으로라기보다 투자라는 언덕을 바탕으로 투자가 자신과 그의 가족의 성실한 노력의 댓가가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유리한 영업 조건이나 초과이윤의 잠재력의 뒷받침도 있었겠지만 영업의 건실한 성장과 이익의 지속적인 증대에는 소유자 매니저의 역량이 더 크게 작용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권리금은 역시 매입자의 입장에서 볼때에도 우선 취업기회의 보장이란 제일의 조건과 다음으로 초과 이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금 이해는 세가지요인 다함께 분석해야

다시 말하면 투자할 사업체가 실물 가치(INTRINSIC OR GOING CONCERN VALUE)는 전혀 없자만 그 비지네스가 영업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 높고 또 언어의 장애로 노동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수없는 상황에서는(정상 이상의 초과 수입보다는)자기 고용이라는 동기에서 투자 결정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권리금의 결정도 이러한 "자기고용"이란 요소에 크게 지배된다고 할것이다.

◉비 영업이윤의 잠재원으로서의 권리금

영업체를 매매하는데는 현재의 영업수익, 영업조건뿐만 아니라 장차에 있을수 있는 정상, 비정상 또는 영업외적 요인도 고려하게 된다. 비록 영업실적은 보잘것 없으나 앞으로 주변 사정이 유리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때 그 영업의 매도 가격에는 권리금이란 초과 개념이 내포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에서 생기는 권리금은 주로 PREMIUM이란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런 위치와 장소를 누가 먼저 발견,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극히 일시적인 선취권 행사라는 개념이 권리금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권리금을 이해하는데는 이상의 세가지 요인을 주어진 상황속에서 다함께 분석해야만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

즉 투자를 하는데 있어 어떤 사람은 고용효과보다 이윤에 더 많은 역점을 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윤은 좀 적더라도 투자가 자신의 취업이 보장됨으로써 높은 인건비 취득에서 투자의 의의와 만족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 지금은 만족할 만한 이윤을 못 올리고 있지만 장차있을 주변 상황의 변화로 얻어질 비영업적인 이익의 잠재성을 더많이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의 경우 즉 초과 이윤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 노동력 이외에 외부 사용인에 일정한 노임을 지급하고도 자본 투자에 대한 이윤이 은행이나 여타 투자에서 얻은 수익보다 높을때를 가정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자본자체에 대한 높은 이익보다는 자기 노력에 대한 정상내지 정상 이상의 보수가 보장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세째의 것은 초과 이윤도 투자가의 고용확대도 아닌 특수상황에서 잉여 재고의 효율적인 처리, 잉여 자금의 활용의 확대(지점, 분점 증설)투자로 인한 경쟁력의 강화를 들수도 있다.

이밖에 시장의 일시적 수요와 공급상황에 따라서 영업의 매매 가격이 또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 있다.

여타의 상품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이 영업권의 판매 가격도 이러한 수급사정을 외면할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권의 수급사정은 초과 이익이나 비영업적 잠재 이윤보다는 취업내지 "자기고용"의 동기가 더욱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새로운 이민들이 취업기회가 한정되어 투자자본에 대한 정당한 보수보다는 오히려 자기고용이란 관점에서 영업권의 매입을 결정하고 있는예가 많다는데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잠재하고 있는 권리금은 비록 지속적인(RECURRING) 점은 없지만 자기 고용및 이에 따른 수요 증대에 의하여 더욱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것이다. (끝)

〈시카고 지사〉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교 민 동 정

◆이춘수(미시사가한글학교 이사장)=동창회일등으로 바쁘고, 가게일로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번에 또 미시사가한글학교(교장 문가자) 이사장직을 맡았다. "어린이 모국어 교육 뒷바라지를 위해서도 한몫 다해야지요"하며 너털웃음.

주간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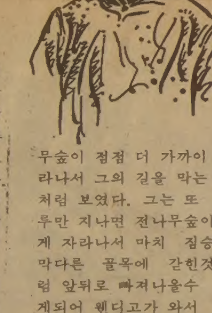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⑨⑤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새까만 전나무숲 사이에 있는 보드러운 눈속으로 썰매가 빠져서 개들이 끌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서 자신이 끌고 가야만 됐다.

바렌평원의 단단한 눈위에서는 눈위를 걷는 신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꾸미는 그런것이 없었다.

그러나 수림지역에서 썰매를 끌자면 반드시 눈위를 걷는 신이 필요했다.

여기에서 가꾸미는 자신의 완강한 고집과 비상한 머리를 증명했다. 대개의 경우 원시적인 종족이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내자면몇세대가 걸려야 되는데 단 하루만에 눈위를 걷는 신발을 만들어냈다. 좀 거칠기는 했어도 그의 목적을 이루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가 만든 굴렁쇠 모양의 눈신발을 신고 개밥용으로 사슴고기를 잔뜩 실은 무거운 썰매를 숲속깊이 끌고 들어갔다.

이할미우트는 숲이 살아있어서 그들이 들어오는것을 싫어하며 사람을 해치는 사악한 것이라고 믿어왔다. 만일 이누이트가 숲속을 여행하고 숲속에서잠을 자야될 경우에는 그에게 오직 닷새간의 안전기간밖에는 주어지지 않기때문에 나무밑에서 더이상머문다면 나무는 침입자를없애려고 음모를 꾸민다고믿고 그이전에 숲에서 빠져나온다.

가꾸미가 숲속에서 지낸지 거의 닷새가 되었고 그는 공포심을 억지로 참고있었다.

닷새째되는 오후에 그는 나무가 전혀 없고 또 돌로 가득찬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큰 호수가에 도착해서 그룹의 한 섬위에서 그날밤을 샐 캠프를 만들었다. 주위에는 땔 나무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낮은 눈구덩이를 피난처로 삼고앉아있었다. 그는 공포와 추위로 오들오들 떨었고 드디어는 절망감이 덮쳐왔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바렌에 있는 먼호수의 밑바닥에서 만난 그귀신을 미친듯이 불러보았다.

그때 가꾸미는 공포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있었다. 그의 사슴고기는 거의 바닥이 나서 더 여행을 계속하기가 무서웠지만 또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도가장 무서웠던 것은 지나가는 여행자를 잡아먹는 웬디고라고 불리는 인디언귀신이었다. 귀신과 마귀들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깜깜한 숲속에서 마구 소리를 내는것 같았다.

닷새가 지나가긴 했어도 가꾸미에게는 시커만 전나무숲이 점점 더 가까이 자라나서 그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또 하루만 지나면 전나무숲이크게 자라나서 마치 짐승이 막다른 골목에 갇힌것처럼 앞뒤로 빠져나올수 없게되어 웬디고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 것이라고생각했다.

그는 이글루우자릭이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어느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를 죽일지도 모르는 인디언부락을 만날까봐 겁이 났다.

그는 물속에서 한번본 그 귀신을 소리높여 불렀다. 그러자 음산한 주위를 보라빛으로 물들이는 찬란한 극광이 갑자기 나타났다.

가꾸미는 이것을 귀신이 주는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는 불을 피우지 못했고 썰매옆에서주 그리고 자는 개들에게 등을 기대 몸을 덮히고 또신변을 보호하면서 잠을 청했다.

가꾸미가 소인이었 거나 사리가 불분명한 사람 이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돌아갔을 것이다.

숲속에서 6일째 되는날 새벽에 가꾸미는 개들에게 썰매를 메워 다시 남쪽 으로 몰았다. 그러나 그는목적지로부터 200여마일이나 벗어나 딴길로 가고있다. 것을 몰랐다. 이글루 우자릭에 가자면 바다쪽으로흐르는 강줄기를 따라서 동쪽으로 꺾었어야 했다. 그는 내륙 깊숙히 너무 들어와서 그쪽으로 흐르는 강을 보지못하고 남쪽의수림지대로 흘러가는 얼어붙은 큰강을 만났다.

숲속은 썰매가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울창해서 얼어붙은 강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계속)

東国人의 밤

저무는 또 한해를 보내며 보다깊은 우애와 번영을 기약할"동국인의 밤"을 아래와 같이 준비 하였읍니다. 부디 부부동반 하시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2월5일(토) 오후7시
장소 : RAMADA INN (185 YORKLAND BLVD, WILLOWDALE TEL : 493−9000 HWY 401 & DON VALLEY PARKWAY)
회비 : COUPLE당 $30
연락처 : 844−8052 (Mr. 정)
791−6412 (Mr. 이)
282−5632 (Mr. 조)
*「전자올갠 연주자 박홍씨 특별출연」

재카나다동국대학교동문회장
정규영

제1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

금번 한인볼링협회는 제1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를 아래와 같이 가지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198 1년12월12일(토)오후12 : 30
장소 : PLAYTIME BOWL LTD(33 SAMOR RD)
종목 : 부부전(혼합식) 참가비 $7—
단체전(3인1조) 참가비 $20—
개인전(남, 녀) 참가비 $7—
시상 : 개인전−챔피언(애뉴얼트로피)
남 1, 2, 3, 4, 5등, 여 1, 2, 3등
핸디캡−남, 녀 1, 2, 3 등
부부전−챔피언(애뉴얼트로피)1, 2, 3등
단체전−우승, 준우승
하이싱글및 장려상−남, 녀 1명
부상 : 개인전 챔피언−제니스 흑백TV (아카데미TV사 김정운 제공)
여자 1등−무료파−마권(헬렌미용실 이승자 제공)
부부전 챔피언−범랑 김치통셋 (미도파백화점 장추신제공)
핸디캡 남1등−국보쌀(한국식품 서부서춘원)
핸디캡 녀1등−장미쌀(한국식품서부)
※본시상은 12월19일 송년잔치 장소에서 있겠읍니다.
전화 : 759−8228(Mr. 장), 622−0224(Mr. 오)

크리스마스및 송년잔치

한인볼링협회는 회원및 교민의 크리스마스겸 송년잔치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일시 : 1981년12월19일(토)저녁7시30분~새벽1시
장소 : ALBION 커뮤니티 센터(1485 ALBION RD & KIPLING AVE.)
회비 : 커플 $30— 싱글 $20—(식사, 주류, 드링크 포함)
회원권판매 : PLAYTIME볼링장에서 매주 일요일 하오6~9시, 한국식품서부
파티 프로그램
● 시상식(제1회 코리언컵 볼링대회)
● 행운경품 추첨
벽시계(영리무역 이영현 제공)
카 스테레오(HI−FI HOUSE 하명호)
액자(H&S PICTUR FRAME조성호제공)
라면 1상자(한국식품서부지점 서춘원)
샘표간장(한국식품서부지점 서춘원)
● 노래와 경음악(4인조밴드 출연)
● 댄스파티
전화 : 759−8228(Mr. 장), 622−0224(Mr. 오)

주최 : 재카나다 한인볼링협회 후원 : 한국일보사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각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新安보물 7차인양서 2천5백점

船片18점도함께…日船인듯

나막신·저울등 日遺物 쏟아져

지난 두달동안 다시 실시된 新安해저유물인양작업에서 높이 47·8cm의 靑磁素文 淨甁, 소형저울, 일본紋章이든 칠기 접시, 일본칼자루와 칼코, 나막신(게다)등 2천5백64점의 유물과 船片 18개가 인양됐다.

문화재관리국은 19일 이같은 7차인양작업의 결과를 발표, 이번작업으로 의문에 싸였던 船首의 사다리꼴구조가 확인됐으며 각종 일본유물은 당시의 교역사연구에 새로운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양된자기중 가장 눈길을끄는 유물은 높이 47·8cm, 입지름 6·8cm의 청자소문정병과 밑굽에 元의관청 (公用器인 「使司帥府公用」이란 글이 들어 있는 청자접시다.

발굴단장 尹武炳교수는 청자소문정병은 南宋대 작품으로는 특이한 세계적 유물이며 元의 관청용기는 유물선의 시대연구에 중요한자료라고 말했다.

당시 도량형연구의 귀중한 자료인 소형저울 1개는 길이가 32·3cm로 눈금이 새출 나왔다.

일본문장이 들어있는 칠기 접시는 높이 1·9cm, 입지름 6·5cm이며 나무신은 길이 23·9cm 높이 6·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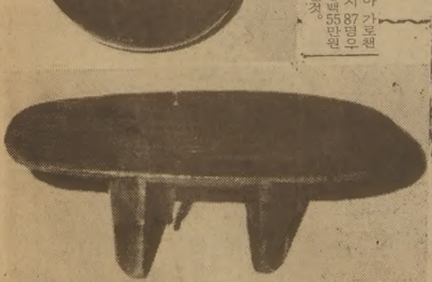
일부학자들은 이같은 일본유물이 나옴에따라 新安해저유물선을 일본배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신안해저유물선이 앞이 뾰죽한 우리나라나 중국배와 달리 일본배의 특징인 사다리꼴이고 선잠실에서 나온 칠기접시의 문양이 일본가마쿠라의 겐지(源氏) 문양임을 들어, 가마쿠라의 배가 중국에서 도자기를 싣고 돌아가다 침몰한 것이 아닌가 보고있다.

(馬山市M중고사)는 아다 이 보낸편지에 찍힌 서울東大門우체국 소인을 확인, 서

욕시내 테니스장을 입일히 뒤졌으나 찾지못하고 東大門경찰서에 신고했다. 가출한 姜군은 지난80년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했고 81년에는 준우승을 했으며 현재는 중학부 전국3위로 경남선수권을 보유하고있다.

아단 이회사 전무 崔英洙씨(40), 사무장 李壯燮씨(36)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崔씨등은 지난79년2월 서울鍾路區關洞203의1 영신빌딩3층에 삼영공사라는 사채회사를 설립,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낸뒤 80년2월3일 이를 보고 찾아온 崔貴燮씨(74·여·서울麻浦區孔德洞249의4)로부터 2천7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 지금까지 87명으로부터 모두 13억1백5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것.



◇일본 나무신 (게다) 과 일본紋章이있는 칠기접시.

한국의 戀人들

燕山主의 魅力 <11>

玉臺感傷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네子女의 夭折읊으며 人生의 덧없음 사무치게 느끼고

帝王으로서 다룰것 아닌 꽃·여자·새 따위의 詩題즐겨

아무도 연산을 시인(詩人)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연산은 훌륭한(?)시인이다. 연산만큼 많은 시를 남긴 임금이 없다. 세자시절의 연산은 글공부에 게을러 부왕인 성종으로부터 자주 꾸지람을 듣긴 하였으나 임금이 되자 연산은 분위기에 걸맞는 시를 지어 읊었고 이 때문에 스스로 걸출한 제왕이라 자부하였다.

기록(燕山君日記)에 남아 있는것만 하더라도 연산은 30편 이상의 시를 지었는데 그는 즉위 5년째인 1499년 3월삼짇날 첫 시를 썼다. 홍문관원(弘文館員)에게 중흥동에 답청(踏靑)하게 하고 승정원에 내린 것으로 『어찌 이 날 그대들에게 선온하기를 사양하리까. 얼큰히 취하여 돌아오거던 앞에 나타나다(那辭此日倂宣醞 酩酊歸來吊上天)』였다. 이 시에는 신하를 아끼는 뜨거운 마음이 서려 있는데 두번째 시에도 왕의 어진 마음이 서려있다. 같은 해 섣달 초하룻날 기한제(祈寒祭)를 지낸후 추위가 심하므로 정원(政院)에 어사주와 시를 하사한 바 신속, 『기한제 끝났으나 찬바람 불어오네, 하늘이 미성(微誠)에 감동하여 곧 보답하시리. 내 술과 안주로 기쁜 마음 표하노니, 얼근하게 취하여 내 시를 화답하오. (祈寒初畢凜風吹 天感微誠報片時 我以醑饌欣意論 不妨沈醉謟賡詩)』

그리고는 시에 자신이 없었던지 정원에서만 알고 널리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믐날에 윤필상(尹弼商)·과 좌의정 한치형(韓致亨)·영의정 정문형(鄭文炯)·우의정 성준(成俊)이 문안 드리자 연산왕이 시로 답례하였다.

『길은 멀고 땅이 미끄러워 다니기 어려운데, 충성심이 도타와서 대궐에 나왔구료. 나는 비노니, 어진 정승들이여 나의 잘못을 도와주고 복령과 대춘처럼 오래 사시오(路滑地滑最難巡 不知誠忠詣紫宸 予欲賢公遺勵補 惠期年齒似椿)』 이 얼마나 깊은 충성과 깊은 사랑을 어진 신하와 어진 임금이 화답한 노래인가.

이듬해(1500년) 삼짇날에도 승정원에 술과 시를 내렸는데 『감히 시라고 하기 어려우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겸사(謙辭)를 단 이 시는 『3월 3일 봄바람 부는 서울 거리에, 새날고 고기놀며 온갖 꽃 향기롭네. 난정 놀이를 뉘라서 좋다는고. 은대(승정원)에서 어사주로 취함만 할까 (紫陌春風三月三 鳥飛魚泳百花酣 蘭亭禊事雅云好 不似銀臺賜酒酣)』한 내용이었다.

그런가하면 8월1일에 승정원에 내린 시는 우수가 서려 있다.

『비개고 구름 걷혀 밤기운이 맑으니 달밝은 윤각(綸閣:制誥를 짓는곳)에 꿈 이루기 어렵구나. 해마다 좋은 때를 구경할수없으니, 어옹(漁翁)의 한평생, 지남만도 못하네 (雨散雲收夜氣清 月明綸閣夢難成 年年未得佳時賞 不似漁翁過一生)』〈1500年8月1日作〉

연산의 말대로 『적막한 심정』을 옳은 것인데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임금이, 특히 그것을 누구보다도 추구했던 연산왕이 이러한 시를 써서 신하들에게 보였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파스칼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필이면 왜 지금 여기에 태어나게 했다가 원하지 않는 때에 죽도록 하느냐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한탄 즉 적막한 심정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연산의 경우는 누구보다도 강렬했던 것같다. 이러한 감정은 사춘기에 민감하며 소녀에게서 특히 예민하다. 그러고보면 연산은 사춘기의 감정을 늦게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를 지은 1500년, 연산은 25세였음) 이 때문에 연산은 천치갈은 천재병에 걸렸고 그런 나머지 천하제일의 제왕을 자처하고, 사치스러웠으며, 인정을 베풀었고, 동물적인 색욕을 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산을 정신병자, 단순히 이상성격자로 보는 것은 잘못일게다.

특히 자신이 지은 시를 신하들에게 보이고, 신하들도 자기 서와 같은 주제로 시를 짓게 함으로써 공감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다.

더군다나 자녀 넷이 일찍 사망하는 불행을 겪었기에 그의 <인생무상>이 더욱 깊어진다. 「애제(哀題)」란 표제가 붙은 칠언시(七言詩)를 보면, 『종묘 사직 영혼이 나의 지성을 외면하여, 어찌 이다지도 내 마음 상케 하는지. 해마다 네 아들이 꿈같이 떠나가니 슬픈 눈물 줄줄 흘러 갓끈 적시네 (宗社幽靈不念誠 如何忍頑我傷情 連年四子離如夢 哀淚行伴濯纓)』(1504年 1月 29세 作) 한결로 미루어 그는 인생이 일장춘몽(一場春夢)임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건 그렇다치고 연산은 시 짓기를 즐겼으며 시에 대한 조예가 깊었는데 자신이 지은 시(耐寒梅)에 차운(次韻)하지 않은 벼슬아치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반대로 좋은 시를 지은 벼슬아치에게는 상을 주었다. 승지 강혼(姜渾)에게 정구흑화(精具黑靴)를 준 것은 시작(詩作)상품이었다.

연산은 강혼의 싯귀 가운데 『惜花春起早 愛月夜眠遲(꽃을 아껴 봄에 일찍 일어나고 달을 사랑하여 밤에 잠을 늦게 잔다)』가 화려하지 못하니 고쳐 지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는데 그는 이만큼 시에 자신만만했다. 한술 더 떠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호(詩豪)인 이규보(李奎報)의 시와 자작시를 견주었다.

1505년2월24일에 『흥경지 가에 지치(紫草)가 번성하여, 맑은 향기가 코를 찌르는 것이 난초와 같더라. 이 풀이 취한 것은 깨게 한다 말하지 마오. 군왕이 여색에 혼취한 것은 풀지를 못하여라 (興慶池邊紫草繁 清香撲鼻似蘭蓀 莫言此草能醒醉 未解君王色醉昏)』한 이규보의 시를 업수이 여겨 어제시(御製詩)를 내렸다.

이규보의 시와 겨룬 연산의 시는 『조정을 기만하였으니 이치에 어긋남이 심한데, 누가 규보에게 시를 써서 진하여 읊조리게 하였던가? 인신의 의리는 충성이 두터운 데 있는 것이니, 청명한 때 임금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 배우지 말라(敢忍人臣義在忠誠厚 莫學淸時慢主心)』였다. 아마도 이규보의 시제(詩題)가 마음에 걸려 그런것이겠지만 자신도 칠언시를 지어 정원(政院)에 내림으로써 시인으로서 자신의 품격을 높이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데 연산의 시는 본고(本稿)에 인용한 것들 모두 그 주제가 술과 여자, 꽃·새·음악·놀이따위로 소위 향렴(香奩)·옥대체(玉臺體)였다. 말하자면 제왕으로서 즐겨 다룰 소재가 아닌 소재를 즐겨 다룸으로써 시품(詩品)을 떨구고 있으며 그의 체통 역시 낮추고 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많은 시를 썼고, 시를 좋아했고 시에 조예가 깊은 예인(藝人)이었다. 이것이 그의 매력이지만 웬일인지 돋보이지 않고 있다. 연산은 임금으로서, 최고경영자로서는 실패자지만 멋있는 남자였고 여성들로부터는 환영받을만한 연인감이다.

모눈종이위의 生 ㉓

趙善作 作
金光培 畵
<256>

엄마.

제가 지금 엄마곁으로 가고 있는거 보고계시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도저히 더 이상은 살아가 지지 않을것 같아서 죽는것은 결코 아니에요. 첫머리를 그런 식으로 시작한 유서(遺書)를 남기고 죽은 나약한 사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소설속의 인물이지만.

하지만 전 아니에요.

살아가는 일이라면 전 얼마든지 자신있는거에요. 보다 너절하게, 보다 더럽게, 보다 악랄하게도 전 살아갈 수 있어요. 엄마와 함께 살던 제기동 집에서 노파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아갈 생각도 해보았어요. 뿐이겠어요? 길거리에서 아무 남자에게나 추파를 던지며 하룻밤씩을 살아가는 여자로도 못살거야 없잖아요.

하지만 전 그냥 저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냥>이야 물론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엄마 곁에 가서 모두해드릴게요. 실은 저, 엄마 살아계신 동안 너무도 많이 엄마 속이고, 또 제게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숨겼거든요. 전 왜 그런지, 엄마한테마저 자존심 상하는 일을 왜 못견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언젠가 세호가 했던 말 생각나시죠? 뻐꾸기 귀신한테 발목 붙잡히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달아나 버리라고. 결국은 엄마도 저도 뻐꾸기 귀신한테 발목을 잡힌 거아닐까요? 세호의 예언력(豫言力)에 전 섬뜩해졌을 때가 참 많았어요.

엄마, 지금 전 좀 어지러워요. 그것도 좀 불쾌하게. 수면제가 벌써 혈관까지, 아마 중추신경까지 침투한 모양이에요. 이젠 곧 엄마 곁으로 갈 것 같아요.

엄마, 뭔가를 그리다가 틀려서 도화지를 구겨 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 몰라. 전 지금 그런 느낌으로 죽는거여요. 모눈종이 위에 제도사가 아주 꼼꼼한 제도를 하듯 그렇게 한 치의 오차(誤差)도 없는 생을 꿈 꾸었었는데 그만 먹물이 번진 느낌 이라고나 할까요.

그랬어요.

전 한번도 제가 두번 결혼해야 된다고는 생각 하지 않았어요. 한사람 이상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는 일마저도 저는 상상한 일이 없었던 거여요. 그렇다고 엄마의 불행을 옆에서 함께 겪으며 사춘기를 보냈기 때문 이라고 엄마를 탓할 생각은 아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 이만하면 충분히, 흘러넘칠 만큼 아주 충분히 살았다는 사실이여요. 엄마가 아버지와 다시 시작해보시겠다고나서셨던 이래 전 너무도 깊고 넓게, 그리고 너무도 질게 일년 이상을 산거여요.

엄마한테 가면 어떻게 살았나 다 말할께요.

엄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긴 엄마가 아버지를 기다리시던 꿈의 장소, <P호텔>의 한 방이어요. 아버지께 바람맞으셔도 하룻밤 묵으시려고 하셨다던…제가 왜 그때 엄마의 그런 작은소망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속상하고 분해요.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온 거여요. 엄마대신 저라도 마지막 하룻밤이라도 묵으려고요.

엄마, 용서하셔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세호의 노랫말에도 있는 것처럼, 먼먼 옛날에는 저도 당신의 몸에서 하나였듯이 제가 대신 하룻밤 묵는 것으로 당신의 소망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겠어요?

엄마.

이젠 너무 졸립고 어러지워요. 엄마, 저 가요. 어디 계신지 절 불러 주셔요. 너무 졸려요. 아, 어지러워…졸려…엄마, 어지러워…어…디·계셔·요, 어·ㅓ·ㅁ·ㅁ·ㅇ·ㅏ·…

해외 걸작 만화

◇길안내

◇<말썽꾸러기의 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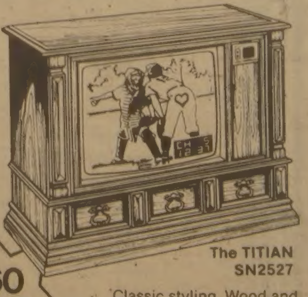
◇앗! 차가와

◇파도에…

해외 걸작 만화

LIMITED TIME ONLY!
Oct. 18 through Dec. 17, 1981
ZENITH
THE GREAT CANADIAN REBATE
UP TO $60 INSTANT REBATE
with the purchase of this
ZENITH SYSTEM 3
26" Remote Control Console

ZENITH T.V. 특별 세일
모든ZENITH 씨스템3 T.V세일
…… 기간 : : 10월18일~12월17일까지 ……
※제니스 Co. 에서 $30~$60까지
CASH REBATE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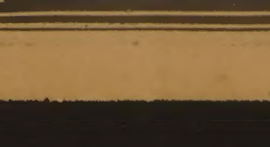


$60 INSTANT REBATE
The TITIAN SN2527
Classic styling. Wood and simulated wood products in Dark Oak finish (SN2527DE) or Pecan finish (SN2527P). Casters.

●REMOTE CONTROL로 조절, 내부에 전화까지 달려 있어 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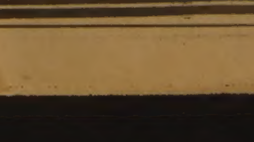
$30 INSTANT REBATE
The HOLBEIN SN1961W
Simulated grained American Walnut finish. Black pedestal base. Brushed Aluminum color acc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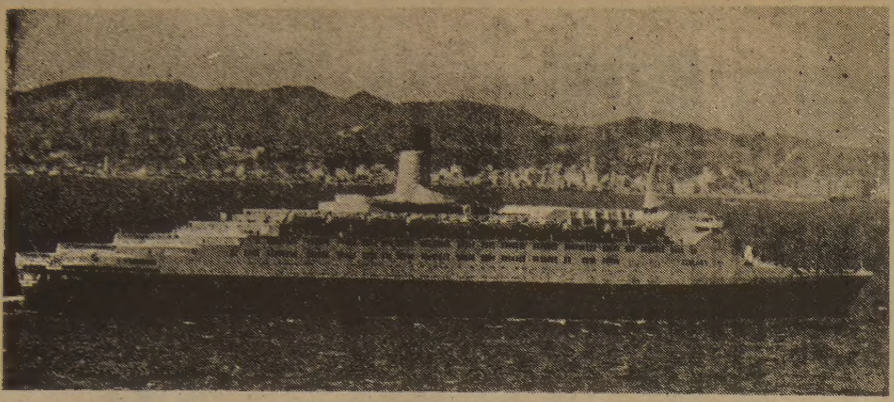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75년초 1천4백70명의 관광객들을 태우고 세계일주 길에 올랐던 퀸·엘리자베드 2호。멀리 눈 덮인 후지산이 보이는 요꼬하마항에 입항하고 있다。

5개월간의 世界一周…… 한번 타는데 1억3천만원

내년 3월부터 釜山에 定期入港할 퀸·엘리자베드 2호의 超豪華 내막

「바다위에 뜬 꿈의 宮殿」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유람선 퀸·엘리자베드 2호(6만7천톤급)가 내년 3월 우리나라에 온다. 英國에서 승객 1천5백명을 태우고 大西洋을 횡단, 美國동부와 南美대륙의 남단을 돌고 太平洋을 건너 아시아 주요관광지를 거쳐 유럽으로 귀환하기까지 5개월간 세계일주를 하는 초호화판 해상호텔인 이 배는 내년부터 釜山항도 고정기항지로 정했다는것. 세계의 周遊 觀光코스로 지정된 釜山항에 닻을 내릴 퀸·엘리자베드 2호를 紙上 유람해 본다. (畵報 참조)

6만6천8백52톤…船幅33m 幻想的시설에 新聞까지發行

◆양탄자 길이만 40㎞

美國이나 英國의 노인들은 흔히 『퀸·엘리자베드나 한번 타봤으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초호화판 대형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유람하는것은 한가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극히 부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노인들의 동경의 대상인 퀸·엘리자베드 2호는 배의 크기, 그리고 시설면에서도 어마어마하다.

총톤수가 6만6천8백52톤인 이 배는 선폭이 32·9m이고 높이가 62m(배의 맨 밑바닥 龍骨에서 굴뚝 꼭대기까지)로 길이는 축구장 세개를 길게 이어놓은 길이와 맞먹는 2백93·53m나 된다.

최대 승선인원은 1천9백명, 이밖에 선원 9백50명, 요리사만도 1백37명이 있다. 연료는 6천5백17톤이나 실는다.

호화스런 배안의 시설을 보면, 우선 수영장 4개, 칵테일바 7개, 은행 2개, 식당 4개에 5백31석의 극장이 있고 카지노와 쇼핑 아케이드가 있고 타블로이드版신문을 내는 신문사도 따로 있다.

船室은 9백개나 되고 승객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엘리베이터만도 23대나 된다. 승용차 70대를 수용할수 있는 차고 다섯 곳에 차량용 승강기도 있다.

상갑판에는 선객들이 드러누워 일광욕을 즐길수 있는 플라자에 푸른 빛깔의 푹신한 의자가 있고 골프를 칠수 있는 미니 골프장도 있다. 개를 돌봐주는 아가씨들이 선객들이 데려온 애완견을 운동시켜주는 특수운동장이 있는데 이 곳엔 실물크기의 가로등까지 있다.

무려 13개나 되는 갑판 곳곳에는 터키탕, 사우나탕에 체육관시설이 있는가하면 2개의 도서실에 음악감상실, 병원도 있다. 배안에 깔린 양탄자길이는 백리길이나 되는 40㎞.

제6갑판에 자리잡은 병원에는 배가 취역하는 4월부터 11월까지 2명의 전속 의사가 배치되어 선객이나 승무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며 급한 환자를 돌본다.

갖가지 시설이 갖춰진 배안에서는 교대로 근무하는 2명의 船長이 베푸는 칵테일 파티와 국제색이 짙은 댄스파티가 거의 매일 밤 열려 승객들의 피로를 덜어준다.

4개의 식당엔 웬만한 세계적인 요리는 모두 다 준비되어 있다.

식도락가들이 즐겨 찾는 美食인 철갑상어의 알젓인 캐비어는 퀸·엘리자베드2호의 명물. 이 배안에서만 먹어치우는 양이 전세계 생산량의 5%를 차지하고있는 정도다.

1백30명의 요리사들은 정규음식이 손님의 구미에 맞지않으면 당장 특별요리를 만들어 서브할수 있게 항상 주방에 대기하고 있다.

방울뱀 요리같은 별난 요리주문이 있을 때는 최소한 뱀장어를 비비 꼬아 훈제한 요리라도 내놓을 정도로 손님의 비위를 맞춰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大西洋횡단 12일동안 포도주 1천2백병, 2톤의 필레미뇽(육류나 생선의 연한 살코기부분), 45㎏의 파테드프와그라(지방이 많은 거위의 간장을 잘게 다져 만든 음식)라는 음식, 거기다 70㎏의 캐비어를 먹어치운다.

호화판 연회장에 나온 피아니스트는 O씨. 『요리가 너무 많아 피아노가 어디 있는지 못찾겠다』는 농담까지 할정도.

제6갑판에는 맨앞에서 끝까지 폭 2m의 작업통로가 따로 있어서 전기사나 배관공이 왕래하면서 전선, 파이프를 운반 또는 수리하기도 한다.

제7갑판과 제8 갑판에는 식탁보에서부터 시멘트부대까지 온갖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 큼직한 창고가 자리잡고 있다.

퀸·엘리자베드2호가 연분홍으로 붉게 놓지는 北大西洋의 파도를 가르며 英國남단의 싸우댐프턴을 떠나 뉴욕으로 향할 때는 상갑판에 자리잡은 여행객들은 모두들 저만큼 너울거리는 물결위에 아롱지는 다이어먼드의 반짝임에 마음이 설렌다.

◆해난구조도

마치 아라비안나이트만큼이나 환상적이고 장려하다는게 퀸·엘리자베드2호에 대한 찬탄이다.

퀸·엘리자베드2호라고 모두 터없이 화려한 시설만이 있는것은 아니다.

호화유람선인 만큼 안전장치도 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팀식 기관으로 스크류 2개를 돌려 최고속도 28·5노트의 속력을 내는 거대한 배의 조타실 舵輪은 접시 크기만해서 조타수가 손가락으로도 무려 75톤이나 되는 이 배의 키를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게 장치되어 있다.

74㎞이내에서 다른 배가 다가오면 자동경보기가 울려 충돌을 예방해준다.

제2갑판의 안전관리실에는 15개의 水密門중 어느 것이라도 쉽게 닫을수 있는 버튼장치가 있고, 이상 고열이나 위험한 가스 또는 침수를 미리 탐지해서 경보신호를 보내주는 고성능 경보기도 있다.

선체 앞뒤에는 2개씩 4개의 지느러미 모양의 안전판이 붙어있다. 파도에 대응하는 이 안전장치의 각도는 컴퓨터로 계속 조정되도록 되어있다.

78년9월 뉴파운들랜드 근해에서 항해중 지독한 폭풍권에 휘말렸을 때도 무사히 파도를 헤치고 항진할수 있었다.

2명의 船長이 교대로 勤務 船客料 最下가 6백67만원

표박 24시간동안 높이 30m나 되는 산더미같은 파도에 호되게 두들겨 맞을 때는 선내에 있던 도자기들이 박살나고 가구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기까지 했다.

폭풍에서 벗어난뒤 어느 여자선객이 선장에게 『연안경비대에 구조를 청할 생각이 없으셨나요?』라고 묻자, 선장은 『첫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둘째 만약 연안경비선이 그 해역에 있었다면 오히려 그 경비선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겁니다』라고 자신있는 대답을 했을 정도로 안전 항해장치가 완비되어 있다.

선체의 점검은 항구에 정박했을 때 잠수부들이 해치우며 대수리 이외의 작은 손질은 거의 전부 항해중에 발전기를 돌리면서 해치운다.

이 배의 전기시설은 템즈강 북쪽의 런던시가의 가로등을 충분히 밝힐수 있는 전력과 맞먹는다.

이래서 퀸·엘리자베드2호는 1년에 3주일만 乾船渠에 들어갈 뿐이다.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어떤 상황에서도 선객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4년 플로리다 동쪽 1천5백㎞지점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었다.

이로 인해 무려 72시간동안 표류했으나 선객들은 계속 유쾌하게 떠들어댔으며, 밴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흥겹게 연주했고 샴페인잔은 넘쳐 흘렀다.

76년7월 어느 날 기관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선내 소방원들이 출동해서 포말소화기와 화학소화제로 불과 30분만에 불길을 잡아 [illegible] 용감한 소방원이 선객들이 보는 앞에서 푸짐한 상을 받기도 했다.

때로는 이 배가 호화 유람선답지 않게 조난중인 배를 구조하거나, 선체가 크게 파손된 다른 배의 선원들을 옮겨 태우기 위해 서슴지않고 항로를 벗어나기도 한다. 바로 호화여객선에서 조난구조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5~6년전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날 밤 식중독으로 위독한 소련의 저인망어선 어부를 구조하기 위해 4시간이나 엉뚱한 항로를 찾아 항진하기도 했다.

◇세계최대의 초호화 유람선 퀸·엘리자베드 2호의 선객들은 매일 밤 파티로 船遊를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여유있는 항해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목적지에 꼭 가려는것보다 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 손님들이 타고 싶어하는 배가 바로 엘리자베드 2호인 것이다.

◆赤字예상 빗나가

경쟁이 치열한 해운계에서 이 배가 프랑스호나 유나이티드·스테이트호등 다른 호화 여객선을 앞지른것은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선객중심으로 건조돼 선객들이 마음놓고 푹 쉴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65년7월 英國의 스코틀랜드 클라이드江 기슭에 있는 존·브라운조선소에서 건조된 이 배는 龍骨이 세워지기도 전에 큐나드社의 선원들이 초호화판 해상호텔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내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파나마운하의 閘門 통과를 위해서 선폭을 32m로 좁게 설계하는등 초호화선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배가 완공되어 69년5월 大西洋횡단항해에 오를 때만 해도 해운전문가들은 이 배의 앞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船室 9백, 요리사만 백37명 승객이要求하면 뱀요리까지

전문가들은 호화로운 바다의 宮殿시절은 이미 끝났는데도 무려 3천만파운드(79년기준 3백90억원 상당)라는 엄청난 거금을 투자한것은 무리가 아니었냐는 평들이었다.

처음 이 배는 정말 수지 맞는 사업대상은 못되는것 같았다.

67년9월20일 엘리자베드女王이 이 배를 進水시킨뒤 재정상 필요해서 빌어 쓴 2천4백만파운드(3백12억원 상당)의 정부융자에 대한 이자지불에 신경이 쓰이는데다 호화여객선을 빨리 가동시키려고 애태웠던 큐나드社는 뒤늦은 선체인도와 기관실의 문제점으로 조선소와 싸워야 했다.

순탄치 못했던 건조과정으로 인해서 출항은 69년5월2일로 미뤄졌다.

큐나드社는 이러한 손해보상으로 조선소측에 2백만파운드(26억원 상당)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좀 내려 받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취항한 이 배에 대해서 한동안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71년에는 경영전문가들이 정기여객선 운항을 4백40만파운드(57억2천만원 상당)=79년기준환율)의 赤字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73년 트라팔가부동산투자회사가 큐나드社를 인수하면서 1백80만파운드(23억4천만원 상당)를 들여 내부를 말끔하게 손질한뒤부터 이 배는 정원 1천9백70명중 1천1백명이라는 損益分岐點을 웃도는 여객수를 줄곧 확보하게 되었다.

75년에는 大西洋횡단을 그만두고 대담하게 3개월간의 세계일주항로를 개설했다.

이때도 赤字를 예상하는 말들이 많았으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3만8천5백해리(7만1천3백㎞정도)에 이르는 긴 항로의 호화선 티킷은 매진되어 1백만파운드(13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

퀸·엘리자베드 2호의 선배격인 퀸·엘리자베드호와 퀸·메리호는 赤字투성이었던데 비해서는 좋은 대조를 이뤘다.

퀸·엘리자베드 2호는 상부구조물의 경우 배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고, 보일러는 3개 (1호는 12개)뿐이며, 하루 기름 소비량은 5백50톤(1호는 1천2백톤), 선원수 9백50명도 3분의2 정도였다.

◆10년동안 65만명 타

해운관계 업저버紙의 표현을 보면 퀸·메리호는 『마치 술에 취해서 헤어나지 못해 흥청망청 써버리는 王族의 미망인 같았다』고 했지만 퀸·엘리자베드2호는 아주 짜임새있게 운영되고 있어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있다.

퀸·엘리자베드2호는 흔히 2중생활을 한다는 말을 듣는다.

이는 여름철에는 1등과 2등의 두 등급으로 나눠 약 30회정도 大西洋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겨울에는 巡遊船이 돼 카리브海를 순항하고 파나마運河를 거쳐 멕시코의 태평양연안에 있는 아카풀코, 그리고 하와이의 호놀룰루, 싱가포르등 세계 24개의 전설적인 항구를 찾아가는 연례적인 세계일주를 하고 있다.

70년대초 이 배의 大西洋항로에 대한 예약은 크게 증가했다.

비록 제트기시대이지만 여행자들은 최고 시속 28·5노트인 바다위의 느림보여행이 그 나름대로 멋진 느낌을 맛보게 해준다는 점에 이끌리는 현상을 보였다.

추운 겨울에 손님이 대폭 줄자 겨울철에는 관광 巡遊船으로 탈바꿈했다.

또 이 배는 전에 승선한적이 있는 선객들이 다시 한번 더 타고있는 케이스도 많다는 점을 감안, 해마다 새로운 기항지를 개발해서 南대서양의 트리스탄 다쿠냐섬에까지 갔을뿐만 아니라 서방측 정기여객선으로서는 최초로 요동반도의 공영항구 大連에 들른적도 있고 내년3월에는 역시 최초로 우리나라의 釜山항을 찾아 선객들이 慶州등지를 관광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일주항해에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79년도 세계일주의 경우 선객요금은 최하가 5천1백30파운드(당시 한화 6백67만원)이었고 욕실 2개에 응접실이 딸린 호화판 2층형 객실은 9만5천3백65파운드(당시 한화 1억2천4백만원)였다.

철갑상어 알젓 全世界 생산량의 5% 소비

西方 여객선으로 大連에 最初 入港하기도

이 배의 승무원들은 흔히 『바다의 여왕은 세계각지에서 황금을 긁어모으고 있지요』라는 말을 자주 쓴다.

지난 10년동안 이 배에 탄 손님 숫자만해도 무려 65만명이나 된다.

이제 큐나드社의 최상급 돈항석이 되면서 해마다 더 오랫동안 바다위에 떠있게 됐다.

퀸·엘리자베드호와 퀸·메리호의 허망한 퇴역을 상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형 호화여객선으로는 마지막 배인 퀸·엘리자베드 2호의 앞날을 지레 걱정하기도 한다.

造船비용이 해마다 자꾸 오르는만큼 다시는 이같은 초호화여객선을 건조할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퀸·엘리자베드2호의 설계주임이었던 댄·월레스씨는 이 배는 不老長壽할것이라고 했고 적어도 80년대 말까지는 자탱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이 여객선은 최근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항해중 劇作, 해양학, 천문학, 중국요리, 침술, 요가, 고고학등의 다양한 船上강좌까지 열고 있다.

◆드릴 만점 사건도

세계적인 초대형 호화유람선인만큼 이 배를 둘러싼 일화도 수두룩하다.

우선 이 배를 탄 선객들 가운데는 저명인사가 많다.

영화배우 존·폰테인, 루이·줄단과 作家인 아이자크·아시모프등이 있고, 색다른 인물로서는 특별전용실에 비둘기까지 키우고 있던 러시아王朝의 후예라는 공주가 있었는가하면, 이 배에서 헬리콥터를 전세내어 발리섬에 날아갔던 사교계의 女王도 있었다.

또 애거더·크리스티의 추리소설에서나 나옴직한 미스터리를 남긴/사람도 숱하게 있었다.

지난 78년 스위스 新聞王의 미망인인 69세의 아이어리스·보드머女史가 저녁식사때 50만파운드(당시 한화 6억5천만원 상당)짜리 보석을 걸치고 나와 선객들을 아찔하게 한 적도 있다.

배가 하와이에 가까와졌을 무렵 보드머여사가 행방을 감춰버려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여사의 짐은 잘 꾸려져 있었고 그 보석들도 귀중품보관소 금고안에 잘 간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바닷속으로 스스로 뛰어든 것일까? 아니면 누가 떠밀었을까로 화제가 분분했는데 끝내 진상은 풀리지 않았다.

또 이 배에는 가끔 밀항자도 끼어 든다. 밀항자는 처음 얼마동안은 어두운 바에서 칵테일이나 가벼운 식사를 즐길수 있으나 마음을 놓고 식당에 나타났다가는 승무원들이 용케 잡아낸다.

이 배의 경비담당 승무원들은 밀수품, 마약, 폭탄등을 찾기위해 끊임없이 배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돌아 다닌다.

지난 72년에는 어떤 괴한이 큐나드社의 뉴욕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만약 17만5천파운드(80년 한화비율로 2억3천만원 상당)를 내지 않으면 이 배에 몰래 장치된 폭탄6개가 동시에 폭발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 와 전세계가 깜짝 놀란 적도 있다.

당시 大西洋 한가운데에서 항해중이던 이 배에 초비상이 걸렸다.

승무원들은 선객들이 놀라지 않게 조용하고 침착하게 위험을 경고하면서 모든 갑판을 샅샅이 조사했다.

2대의 英國공군기가 하늘에서 호위하고 폭탄처리 전문가 4명이 뱃머리에서 3백m가량 떨어진 해상에 낙하산으로 내려 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나이는 바닷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옷속에서 英國의 데일리·메일紙를 꺼내 『오늘 아침 新聞봤느냐?』며 선장에게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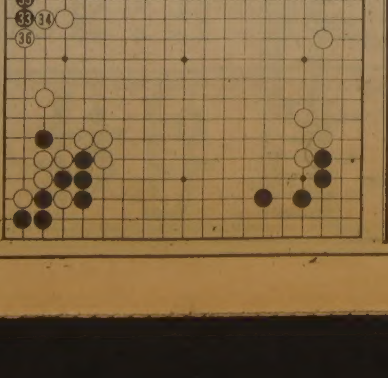
이 폭탄소동은 결국 짓궂은 장난으로 밝혀져 공포에 떨던 선객들은 한바탕 유쾌하게 웃고는 다시 축배를 들며 새로운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는 얘기.

이 사건이 난뒤부터는 조타실이나 기관실에는 어떤 방문객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성쇠의 세월을 겪어온 퀸·엘리자베드 2호는 이제 남다른 개성을 지닌 초호화객선으로 부상됐고, 바로 이점이 이 배와 목숨을 함께 하고 있는 승무원들의 끝없는 자랑이기도 하다. 〈趙允植기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 第3譜 33~52 (각 5시간 덤 5집반)



白(7段) 河燦錫〈1敗〉
黑(7段) 徐奉洙〈1勝〉

姜哲民 6단과는 좀 유가 다르지만 河7단도 승부보다는 진행과정을 즐기는 식의 타이프라 할까。성격이 느긋하면서도 「표일」한것이 특색인 때문인지 두고있는 품은 경쾌무쌍、아무리 역경에처해도 상심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띤얼굴로 요모조모생각한다。

이겼을 때는 담담하고 졌을때도 기껏『수가 안보이는걸』하는 말 이상의 변화는없다。

그런 河7단이 본보에서는 때이른 호조를 보이기시작한다。黑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만큼 작전의 차질이생긴 셈인데 문제는 33、35。대체로 초반에 바둑돌이、제2선으로 가는것은 좋을리가 없단얘기다。이로인해 白은 34、36으로 약간 허술했던 좌변진용이 강화되어 우선 黑이 불만인 꼴이다。그리고 黑37、39에 대하여도 좌변이 강해진때문에 白40의 변화를 마음편하게 피할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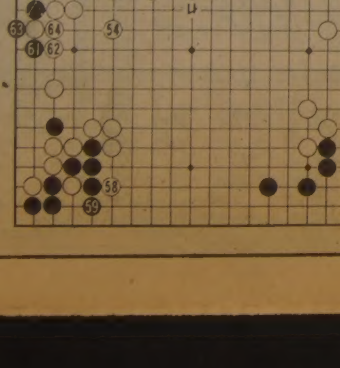
白、好調의 進軍

결론적으로 黑33、35는 아무리 보아도 이로운 수단이 아니므로 차라리 건드리지 말고 그냥 37쪽으로 先行해야 옳았다는 것이다。黑49까지로 된 정석결과가 黑으로서는 도무지 탐탁치 않고 게다가 白은 50에 전개한 수순을 얻어서 河7단은 갑자기 유망한 국세를 만들게 되었다。

徐7단도 실은 그즉시 33·35를 뼈아프게 뉘우친 모양인데 말은안했지만、15분씩이나 생각한것이 하필 이런 拙作이냐는 自責은 했을것 같다。여하간 白은 언제 「가」의곳에 선수할수 있는만큼 상변은 견고하다 보겠고 黑51에는 또白52로 달려나와 黑을 역습할 자세이니 호조가 분명하다。44…37이음。【一八】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 第4譜 51~70 (각 5시간 덤 5집반)



白(7段) 河燦錫〈1敗〉
黑(7段) 徐奉洙〈1勝〉

바둑에서 말하는 好·不調도 다른 모든게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의 형편에따라 좌우된다고 하겠다。말하자면 바둑이 잘풀려나가느냐 아니냐인데 이것은 곧승리의길이쉽게 열리느냐 아니냐에도 통한다。그야말로 「승리는 거저얻는것」이 아닌이상 현재의 호조가 바로 종국의승리를 뜻하는것은 못된다。다만 문제가 있다면 특히 초반에서 상대에게 호조를 허용하면 무엇보다 정신면의타격을 면치못하는것이 인지상정、이때문에 去益甚 난국을 빚기쉬운가보다。

이바둑에서 黑의경우가 이와비슷해서、徐7단은 黑51로인해 白52를 당하자 또한번 마음의 동요를 가져온 모양이다。우선 좌상귀의 黑대마가 53에서 57까지、서둘러 달아나야 할 입장이니 여유하기 짝없는 노릇이다。

白68、秘藏의 強手

그反面 白은 54의곳을 멋지게 先着하고、52에서56에 뻗어 상변의진용도 안정했을 뿐아니라 一轉하여 58의선수활용다음 다시우변을 60으로 전개 경쾌하여 그야말로 東西번쩍식。물론 白의우세는 부인할수가 없는 형편이다。

한데 이때도 徐7단은 黑61、63으로 제2선에서 제1선으로 넘어갔다。애초 좌상흑 정석을 黑이 실패한원인은▲표들로 低位를 기어들어가서 白을 굳혀준데에 있었다。그런데 지금도 61、63등으로 白을 거듭 굳혀주고 있으니、이해하기 곤란하다는 풍문이다。

黑65때 白66은 동문서답이며 黑67때 白68은 黑69를강요하고 70에치받으려는 秘藏의강수。자、黑은 다음 「가」와 「나」어느쪽을 둘것인지 궁금한장면이다。【一九】

朴基哲 金東吉 崔宇鎭 銅메달에 그쳐

월드컵복싱 準決勝

【터론토支社鄭觀成기자】제2회 월드컵아마복싱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은 17일 이곳 몬트리올경기장에서 속개된 준결승전에서 崔宇鎭(라이트미들)、金東吉(라이트웰터)、朴基哲(페더)이 모두 패배、탈락함으로써 동메달에 그치고 말았다。알만도·말티네(쿠바)와 맞선 崔宇鎭은 2라운드 50여초를남기고 2차례나 다운、RSC패했으며、朴基哲도 모스크바올림픽은메달리스트 아돌포·홀타(쿠바)에 다운당하는등 열세끝에 5-0으로 판정패했다。캐나다의 리키·앤더슨과 맞선 金東吉은 다소 우세한 경기를 이끌었으나 판정패、역시 동메달에 그쳤다。

준결승을 마친 이날현재 종합득점에서는 소련과 北美대표(미국、쿠바)가 각각 19점을 기록、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불가리아와 함께 8점으로 그뒤를 추격하고있다。

◇준결승전적

▲플라이급
許永模 판정 질·차밀리 (필리핀)

▲밴텀급
張壬錫 RSC 루이스·엘리스 (1회1분30초) (쿠바)

▲헤비급
칼·윌리엄즈 KO 金南熙 (미국) (1회21초)

▲페더급
아돌포·홀타 판정 朴基哲 (쿠바)

▲라이트웰터급
리키·앤더슨 판정 金東吉 (캐나다)

▲라이트미들급
알만도·말티네 RSC 崔宇鎭 (쿠바)

한국일보
533－2361～4

두꺼비 안의섭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THOUGHT SO, TOO.

「값이 너무나 형편없이 비싼것 같았어요」

I thought the price was ridiculous.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I thought so, too. 아직도 too와 either의 구별을 못하고 혼동하는분이 많다。「당신은 학생인가」Are you a student? 「네。그렇습니다」Yes, I am.「저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때에는 I am, too. 혹은 So am I를 사용한다。

그러나 부정인 경우에는 too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나는 학생이 아니다」I'm not a student. 하니까 「나도 아니오」하는경우 I'm not, too가 아니고 I'm not, either. 혹은 Neither am I. 라고 해야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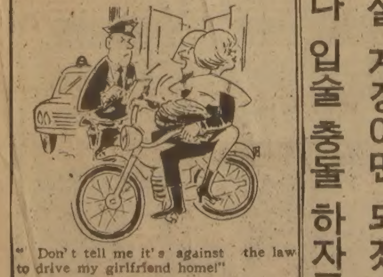
결국 긍정적인 경우만 too를, 부정적인 경우에는 either를 사용해야된다。

A : Brrr! It's cold! I thoght it was supposed to get warmer today.
B : Yes. I thought so, too.
A : What did the weatherman say?
B : He said it would be warmer.
A : It must be the wind that makes it seem so cold. I'm freezing.
B : Me, too. Let's go inside.
A : 어휴! 추워, 오늘은 따뜻해질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B : 그래요。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A : 일기예보 계원은 오늘날씨가어떻다고 했읍니까?
B : 따뜻해 질것이라고 했는데요。
A : 바람때문에 그렇게 추운것같습니다。몸이 얼것같습니다。
B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안으로 들어갑시다。

※be supposed to:∼하기로 되어있다。만지지않아야 될것을 만지는 경우에는 You're not supposed to touch it. 이렇게 얘기한다。

must be:임에 틀림없다。He must be Mr. Brown. 브라운씨임에 틀림없다。

해외걸작만화



" Don't tell me it's against the law to drive my girlfriend home!"

「걸·프렌드를 데려다 주는것도 위법인가요?」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㊿

金洪信 作
崔然石 畫

노신사는 내가 대표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김갑산(金甲山). 너무나 유명한 재벌이름이었다. 내가 유독 그를 미워한 것은 전생에 무슨 원수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보다 엄청나게 부자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어쨌든 나보다 잘 생기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싫었다. 나보다 나은 친구들은 언제고 요절을 내고 싶었다.

『봐야 떨어진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원서는 왜 접수시켰소?』

『오기가 나서요.』

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 오기를 내가 사겠소.』

노신사는 웃었다. 나도 따라서 웃었다.

『제 오기는 좀 비쌉니다. 별로 쓸데도 없는 데 말입니다.』

『난 쓸 데가 있지요. 젊은이의 그 패기를 사겠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다혜의 입술을 생각했다.

『특채하시겠다는 겁니까?』

『난 특채를 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시험을 다 봐요. 채용결정은 내가 직접하면 되겠지요.』

> **지난줄거리**
>
> 춘찬은 다혜의 말대로 취직시험을 볼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T주식회사에 원서를 내러갔다가 춘찬의 원서가 일류대학 졸업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쓰레기 통속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춘찬은 분을 못이겨 회장실로 쳐들어 갔다. 회장은 고개를 끄떡이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 춘찬에게 꼭 시험을 치러 보라고 일렀다.

『제 점수를 알면 후회하실텐데요.』

『그건 내 문제요.』

『좋습니다. 해보죠.』

『그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써 봐요.』

나는 메모지에다 내 이름과 온주누나네 전화번호를 썼다. 김갑산회장은 메모지를 접어 윗주머니에 넣었다.

『가겠읍니다.』

『가봐요.』

나는 문을 닫고 김갑산 회장 방을 나왔다. 문 밖에는 사내들이 떼지어 서 있었다.

『당신네 회장은 살아있소.』

나는 이렇게 말하고 힘차게 걸어나왔다. 회장 방에서 뒤따라 나온 접수대의 사내가 내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치료비는 당신네 회장이 줄 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제복입은 계집애가 눈을 내려 깔았다. 엘리베이터는 회장전용이어서 감히 다른 사람은 탈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계집애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사람들이 뒤에서 내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엘리베이터 안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았다.

『회장님 전용에요. 내려주세요.』

계집애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나는 한쪽눈을 찡긋해 보였다. 계집애가 또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담배를 빼어 입에 물고 의자 옆에 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라이터 좋구만. 비싸겠는 걸. 이거 좀 빌려갈께.』

『안돼요. 회장님 거예요.』

『내가 빌려갔다구 하시라니까 그래.』

나는 라이터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계집애가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쫓아왔다.

『모시고 가라.』

나는 손을 물어주었다. 계집애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꾸하고는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늙은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해 낸것이어서 속도가 느린것 같았다.

『전용 회장실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전용 엘리베이터 있는 건 첨이네.』

내가 혼자 투덜거렸지만 계집애는 면벽한 채 대꾸하지 않았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도열하고 있던 수위들과 신사들의 눈이 커졌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내가 앞으로 회장될 사람이요. 이런 연습을 해두는게 좋소.』

어리둥절해 있는 그들 사이를 뚫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뒤통수가 조금은 뜨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통쾌한 기분을 감출수는 없었다. 어차피 나는 장난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었다.

그리고 이쯤은 통해야 내가 밥을 벌어먹더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내 행동쯤 가볍게 받아주지 않는 회장이라면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평소에 재벌이나 기업체의 총수 쯤되는 치들은 돈에 독이 올라서 돈버러지같이 흉측하게 생겼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이 충격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앞으로 회장될 사람이니 도열 연습해두는 것도 좋지

벼락 맞아 죽으라한 내게 면접 통지서가 날아오다니!

나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다. 그만한 배포가 있기 때문에 재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가슴 깊은 곳에 독살스러움이 만큼의 신념과 용기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런 용심없이 최고가 될 수는 없는 터였다. 김갑산 영감이 재벌가운데에서도 빼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그는 흔하게 널브러져 있는 졸부가 아니었다. 그가 만약 졸부였다면 내 행동을 결코 수긍할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나는 사인펜 몇자루와 볼펜 몇 자루만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내 번호가 부착된 책상 위에서 나는 꼿발이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내 수험번호는 01715번이었다. 화투판이라면 짓지도 못할 숫자였고 끗수도 겨우 네끗 뿐이었다. 이상스럽게 네끗이란 게 기분좋지 않았다. 죽을 4자라고 해서 네끗을 싫어하는 우리네 습성에 은연중 나도 물든 것 같았다.

하긴 목욕탕에 가서 4자리 숫자가 붙은 옷장 속에 옷을 넣지 않는 내 괴벽에 대해 내 스스로 우스울 때도 있었다. 목욕탕에 가보면 언제고 4자 붙은 옷장은 비어 있기 마련이었다.

첫시간의 영어시험지 위에 나는 이렇게 써넣고 나왔다.

출제위원들 벼락맞아 뒈져라.

채점위원들에게 신의 가호를.

첫시간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김갑산 영감의 말이 귓가에 뱅글뱅글 돌고 있어서 둘째시간의 상식과 세째시간의 전공시간에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첫째시간을 망쳤기 때문에 둘째와 세째 시간에도 별 수 없이 같은 얘기만 큼지막하게 써놓고 나왔다.

내 마음은 이판사판이란 생각이었다. 그런 거물 재벌의 주시를 받으면서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른 녀석들보다 점수가 형편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 끌쩍거려서 김갑산 영감을 웃기고 싶지도 않았다. 내 시험지를 앞에놓고 고민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아무리 통 큰 김갑산 영감이라도 내 답안지와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진 못할 것 같았다.

까짓거, 난 어려서부터 시험봐서 떨어지는 일에 이골이 난 놈이니까.

세상일 모두가 시험제로 돈갑해가지고 국회의원, 장관에서부터 면서기까지 모두 시험제로 바뀐다면 악착같이 덤벼들겠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야 머리 터지게 덤빌 까닭이 내게 없었다. 재벌이다 사장이다 하는 것들도 시험제가 아닌 이상 내 흥미를 끌어당길 일은 아니었다.

그런 세상이 오는 날이면 정말 머리터지게 한판 붙어볼 생각이었다.

개운치 않게 며칠이 흘러갔다. 뒷맛이 씁쓸했다. 차라리 백지를 내고 나왔으면 이렇게 뒤숭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김갑산 영감이 아무리 통 큰 사내라지만 떫었을 일을 생각하면 찝찝한 기분이 되었다.

학교에 가서 졸업준비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돌아와보니 뜻밖에도 면접시험을 보라는 통지서가 날아와 있었다. 그건 정말 충격이었다. 출제위원들 벼락맞아 뒈져라 고 써넣고 온 나에게 합격통지서를 보내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다.

김갑산 영감이 거물은 거물인 것 같았다. 나는 그 영감의 심중을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번 일을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면접시험장에 들어섰다. 큰 테이블 좌우로 면접위원들이 둘러앉았고 그 가운데에 김갑산 회장이 버티고 앉아 있었다. 나는 들어서자마자 꾸벅 절을 했다.

그 영감이 직접 나와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않은 일이었다.

『공칠일오번 장춘찬입니다.』

나는 또렷또렷하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분위기가 조금 섬뜩했다.

『내가 바로 출제위원이오.』

김갑산 회장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결과를 보니까 채점위원이셨더군요.』

내 대답이 좀 거칠거칠했다.

『그 뒤에 몇사람한테서 소문을 들었지요. 제 좋은 청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디 나같은 늙은이와 함께 일해보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주눅이 든것 같았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읍니다만…』

『무슨 조건이 있다 이말인가요?』

『보직과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비서실 근무고 초봉이…』

『이십팔만원입니다.』

옆에서 한 사내가 이렇게 거들었다.

『그 정도는 싫습니다. 전 공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 회사를 접수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 회장은 껄껄 웃었다. 긴장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그 늙은이가 크게 보였다.

『전 취직시켜 달라고 애원하러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회사에 저같은 괴물이 한명쯤 필요하다는걸 얘기하러 왔읍니다. 저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회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선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는 내친 김이라는 생각이 들자 주저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어떤 손해를 말하나요?』

김 회장이 의미있게 물었다.

『여긴 지금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똑같게 만들어 놓은 깡통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식탁일수록 싱싱한 채소가 필요한 것이지 깡통 속에 든 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길 들여진 강아지도 필요하지만 야생마 한마리쯤 옆에 두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다.』

『회사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키지 않으려면 뭐하러 여기 왔겠읍니까?』

『좋아요. 비서실 계장이면 족하겠소.』

나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버틴다는 게 무의미한것 같았다. 이런 파격의 채용도 특수한 예일 것 같았다.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해요. 자세한 것은 우리 실장이 얘기해 줄 거요.』

나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비서실장이 따라나와 나를 [illegible]로 데리고 들어갔다.

『환영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도 마주 잡아 주었다.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산하회사를 암행 감사하는 비서실 계장이면 되겠소

이젠 네 입술 뿐이야 호텔서 만나 입술 충돌 하자구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회장님께선 특별히 수행비서관을 하셨으면 합니다.』

『수행비서요? 내가 갑자기 말이라도 변하면 어쩌시려고. 난 숭한 놈이 아니라구요. 비위장 상하면 거꾸로 처박는 놈이라구요.』

『아닙니다.』

『날 안단 말입니까?』

『회장님께서 벌써 다 알아보셨어요. 우리 장형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계십니다.』

『그럼 나보고 죽으나 사나 옆에서 붙어 다니란 말입니까? 보디가드 노릇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칫 수행비서관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뭡니까?』

『수행비서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형은 그냥 말벗이나 하고 직언을 서슴지않고 하면 됩니다. 위나 회사 규모가 크고 방계 회사가 많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장형은 사하 회사를 상대로 암행감사 책임을 맡게 됩니다. 장형 밑에 장형이 데리고 쓸만한 사람을 천거해 주면 바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읍니까?』

나는 속으로 키득거렸다. 그놈의 영감이 내 실력을 인정해준 셈이었다. 내 뒷조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캐냈는지 이제야 알것 같았다.

『말하자면 이 그룹의 암행어사인 셈이군.』

『굳이 따지자면 그런 셈이지요.』

『이 회사에 나같은 사람이 또 있읍니까?』

『물론 있읍니다. 그러나 뻔뻔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봉급이라 뭐라 하는 인연들이 얽혀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믿는지 모르겠읍니다.』

『회장님께서 사람 볼줄은 아시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던데요.』

『장형을 믿는 회장님 심중은 각별하십니다.』

『월급은 얼마나 주나요?』

『봉봉은 사십만원입니다만 수당과 정보비, 활동비를 충분히 쓸수 있게 해줄 겁니다.』

나는 너무 좋은 조건에 가슴이 잠깐 철렁하는 걸 느꼈다.

『내가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명입니까.』

『충분치는 못합니다. 세명밖에 안 됩니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형이라면 충분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해보죠.』

나는 업무에 대한 예지활을 비서실장에게 들으며 메모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회사의 규모나 살림살이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상하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 회사엔 인척들이 꽤 많다고 들었읍니다. 아들과 사위와 처가 일가 친척들 말입니다.』

비서실장의 낯빛이 변했다. 나는 그 순간에 비서실장도 그런 곁가지 가운데 한 사람이란 걸 짐작했다.

『실장님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사위시죠?』

『그래요.』

『그럼 실장님도 조심해야 합니다.』

비서실장은 껄떡거리며 호방하게 웃었다. 나는 비서실장의 웃음 뒤에 숨어있는 당혹감을 재빨리 감지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암행어사가 된 셈이었다. 한 나라의 암행어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의 암행어사지만 말이다.

우리 어머니는 이몽룡이나 박문수 따위만 쳐주지만 그와 비슷한 인거리를 맡게 되었으니 고등고시에 합격한 것 쯤으로 너스레를 놓아놓아도 될것 같았다. 어머니는 큰 회사의 암행어사 쯤으로 만족할 여자는 물론 아니었다. 나라가 들썩거리고 동네가 시끄러운 그런 거물, 입때면『출두야』 한마디로 사천초목이 떠는 그런 인물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터였다.

내가 일어서자 비서실장은 그 자리에서 사령장을 주었다. 김갑산 영감의 치밀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출근은 이 비서실로 하면되나요?』

『그렇습니다.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덟시 반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내일 자세한 건 담당 비서들이 브리핑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 방을 빠져나와 아래층까지 비상계단을 타고 걸어내려왔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었다. 나같은 [illegible]하고 출신은 원서조차 접수하지 않는 회사에서 나를 일약 암행감사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꿈에서 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밖에 나오자마자 다혜한테 전화를 걸었다. 다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채점위원을 모가지 [illegible] 쓴 거지?』

『김갑산 영감 사타구니 붙잡고 늘어졌지 뭐. 그것도 경비원 따위가 아니라구. 비서실 계장야.』

『어머! 말도 안나오려고 한다.』

『이제 남은 건 네 입술하고 내 입술을 정착해도 하루종일 붙여두는일만 남았다.』

그것은 다혜가 먼저 약속한 일이었다. 하루 종일 입술을 무상 대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허튼짓만 않는다면…』

『그래 맹세할께. 어디서 만날까?』

『그러게 말야. 명동이나 광화문 한복판에서 입술 대고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도 없잖아.』

따져고 보니 우리가 만나서 마음 놓고 입술충돌을 시도할 만한 곳이 없었다. 숨어서 하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을 생각할 수 조차 없었다.

『호텔 어때?』

내가 능청스럽게 물었다.

『사진 한장 보내께 호텔에 가서 세컷 해보시지.』

다혜가 빈정거렸다.

『아뭏든 만나기나 하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우리는 무작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다. 정렸다는 건 어쨌든 좋은거였다.

(다음주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大入學力考査 科目·配點조정 4개試案 마련

내일 公聽會, 來週확정

文敎部 高校교육과정에 맞춰 바꾸기로

- 1案 考査科目과 配點 현행대로
- 2案 國語Ⅱ·科學·外國語등 추가
- 3案 84년부터 점차로 科目확대
- 4案 實業·家政·기술·體力章제외

문교부는 18일 오는83학년도이후 시행할 대학입학 학력고사과목및 배점조정 4개시안을 마련, 20일 공청회를 거쳐 내주중 확정키로했다. 문교부가 내놓은 4개안중 ①안은 고사과목과 배점을 현행대로 하자는것이고 ②안은 83학년도부터 현행과목에 국어Ⅱ、한문Ⅱ、수학Ⅱ、제2외국어 (영어는필수)과학 1과목 (인문계)을 추가하는것이다. 또 ③안은 83학년도는 현행대로하되 84학년도부터 86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②안과같이고사과목을 점차확대하자는것이며 ④안은 현행과목을 오히려 줄여 실업·가정등 2과목을 제외하고 체력장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문교부가 이번에 4개시안을 제시한것은 그동안 현행 고사과목과 배점이 고교교육과정과 맞지않은데다 이로인해 학력고사과목에 빠져있는 과목은 고교교육현장에서 무시되는 파행교육의 부작용을 빚어왔기때문이다.

문교부는 이날 이같이 4개시안을 제시하면서 각안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했는데 실무관계자들은「고교교육과정에 충실히 하기위해서는 국어Ⅱ、수학Ⅱ、제2외국어등의 추가가 불가피하나 준비기간을 고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해 제③안을 보완, 채택할 가능성을 비쳤다.

문교부가 내놓은 4개시안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제1안 현행과 동일.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고교교육과정의 불완전한 반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학및 외국어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다.

제2안 현행 과목에 제2외국어 (인문·자연공통) 와 인문계는 국어Ⅱ、한문Ⅱ、과학 1과목 (물리·화학중 1과목은 필수선택)을, 자연계는 수학Ⅱ를 추가한다. 과목별 배점도 축소조정, 현행 3백20점을 3백점으로 한다. 국어Ⅰ (한문Ⅰ포함) 50점은 40점, 국사25점을 15점으로, 기술·가정·가사·실업은 각20점이 15점으로 조정된다. 과학과의 배점은 수학Ⅰ과 영어의 50점을 40점, 정치경제·사회·문화·세계사·국토지리·인문지리의 각각 15점을 10점으로 한다.

제3안 83학년도는 현행과 같이하고 84학년도부터 86학년도까지 제②안의 모델을 매년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한다. 84학년도에는 인문계에 과학 1과목을 추가, 2과목을 선택토록하고 물리·화학중 1과목은 필수선택으로 한다. 체력장제의 총점은 인문·자연 모두 2백60점이된다. 85학년도에는인문계에국어Ⅱ (15점) 한문Ⅱ (5점)를, 자연계에는 수학Ⅱ (20점)를추가, 체력장제의 총점이 2백80점이된다. 86학년도에 가서야 영어는필수가되고 제2외국어 (20)가 추가돼 학과총점은 3백점으로 결국제②안과 같게되는것이다.

제4안 현행고사과목중 실업·기술·가정·체력장을 제외, 총점을 2백80점으로 한다. 이는 시험부담을줄여 과열재발을 막고 체력장은 내신성적에 흡수하면 된다는 발상이다.

◇大入學力과목·배점재조정 (제 2 案내용)

<人文系> 教科目	配點	<自然系> 教科目	配點
國語 Ⅰ	35	國語 Ⅰ	35
漢文 Ⅰ	5	漢文 Ⅰ	5
國語 Ⅱ	15	國民倫理	15
漢文 Ⅱ	5	國史	15
國民倫理	15	政治·經濟	10
國史	15	社會·文化	
政治·經濟	10	世界史	擇一 10
社會·文化	10	國土地理	
世界史	10	人文地理	
國土地理	10	數學 Ⅰ	40
人文地理	10	數學 Ⅱ	20
數學 Ⅰ	40	物理	15
物理 / 化學 / 生物 / 地球科學 (擇一)	15 / 15	化學	15
英語 Ⅰ Ⅱ (必須)	40	生物	15
第 2 外國語	20	地球科學	15
技術(남자) / 家政(여자)	15	英語 Ⅰ Ⅱ (必須)	40
實業 (農·工·商·水産·家事中 擇一)	15	第 2 外國語	20
		技術(남자) / 家政(여자)	15
		實業 (農·工·商·水産·家事中 擇一)	15
計 18 教科目	300	計 16 教科目	300
體力章	20	體力章	20
總點	320점	總點	320點

소득세控除下限 90萬원線

法人稅率 23%서 22%로 引下조정

教育費 공제대상 月 70萬원이하로

税法小委 意見접근

국회財務委稅法심사小委는 18일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所得稅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租稅減免규제법등 주요 爭點부분에 대한 재심사에착수、▲소득세에 있어서 근로소득 控除額의 下限線을 정부案 82만원에서 90만원線으로 인상하고 ▲法人稅率은 정부案 23%에서 22%로 引下조정하는데 與野간에 의견접근을 보았다.

小委는 또 교육비控除제도의 신설에있어 受惠대상폭을 넓히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學資보조금이 課稅대상으로 포함됨에따라 현재 50만원이하 학자금보조를받는 계층에 不利益이 가지않도록 교육비공제대상을 60~70만원線으로 하기로 절충했다.

그러나 소득세부분에서 民韓黨측은 근로소득공제뿐 아니라 人的공제액의 인상을 계속주장하고 있는반면 民正黨측은 더이상의稅收減이나 課稅대상을 축소시킬수 없다는 이유로 人的공제액인상에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小委는 19일 各種稅法의 未合意부분에대한 심사를 계속한후 오는 20일 교육세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豫算案 部別심사 豫決委 非公開로

국회豫決委는 18일하오 5개分科委를 일제히열고 非公開리에 새해예산안에대한 부別심사를 했다.

年賀狀등 안보내기 民正 地方黨에示達

民正黨은 18일 오는 年末年始에는 의원들이 지구당 權者나 당원들에게 年賀狀이나 人事狀을보내지말도록 전국 각지구당에 시달했다.

民正黨은 허례 허식과 낭비풍조를없애기위해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는데 특히年末年始를기해 선물을 주고받는일이 없도록하라고 아울러지시하는한편 冠婚喪祭등 각종행사도 검소하게 치르도록하라고 각지구당에 당부했다.

"國家機關경영 合理化를"

全대통령、閣議지시 능률적 豫算집행으로"

全斗煥 대통령은 18일『예산집행의 능률과 절약을 極大化해 財政赤字를 최대로축소함으로써 모든국가기관의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도록하라』고 內閣에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지시하고 국가기관경영합리화의 例로 각부처의 장비와 비품등 在物조사를 철저히 실시、不用品을 폐기해 능률향상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83년도 예산안은 과거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하지말고 투자효과를 분석、우선순위에 따라 零에서 부터출발해 편성토록 노력할것등을 例示했다.

全대통령은『정부기구·축소작업이 끝난 이 시점에서 모든 공무원은 단기간안에 가장 능률적이며 성실한 복무자세를 정립하고 心機一轉해 새로운 행정풍토 조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 복무선서를 행동으로 실천할것』이라고 말하고『각부처는 모든 소속공무원에게 上部의 의사가 신속히 전달、침투돼 국가정책이 內實있게 실천에 옮겨질수있도록 上意下達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

12월중 韓·日外相 회담

安保經協 再論될듯

60억달러에 관한 韓日양국간의 經協교섭이 日本의改閣이 끝나는 이달말께를 깃점으로 再論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12월중으로 양국外相회담이 再開될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18일『韓日문제는 어느 행정부 또는 어느장관이 바뀌었다고 중단될 성격의 문제가아니다』고 지적、『두나라간의 현안문제를 빠른시일내에 再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는 양국 頂上회담에 앞선 外相회담의 年內再開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소식통은 또한 지난9월 韓日정기 각료회의에서 양측이 頂上회담개최에앞서 外相회담의 再開에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고『日側의 改閣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또 日側행정부의 책임자가 누가되느냐에 구애됨이없이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인 것으로안다』고 덧붙였다.

"再開發지구 설정이전 發生한 無許건물 모두陽性化"

국회建設委는 18일 民正黨 이 議員立法으로 제출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대해 질의를 벌였다.

金周南건설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전국의 竣工未畢건축물은 13만8천7백40동으로 이중 27%에 달하는 3만3천1백18동이 신고되어 2만여동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무허가건물이 陽性化될경우 이에따라 주택값과 전세 삭월세값도 일부상승하리라보고 세든 서민들을 위해 賣子호대상자 혀식으로 구제하는 조치를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再開發제한구역을 설정하기이전에 발생한무허가건축물은 모두 양성화하겠다』고 말했다.

人權위배、友邦도 公開批判

美國務省、한국등 많이向上

【워싱턴17日=曹淳傑특파원】미국무성인권담당차관보로지명된 엘리어트·에이브롬즈씨는『자유의적에 대해서는 비판해야한다』는 최근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강조하고 미국의 우방일지라도 분명한 인권위배사항이 있을때는 공개적으로 비판해야한다고 17일 상원외교위원회에서 증언했다.

올해 34세의 에이브롬즈씨는 세계의많은나라에서 정치적자유가 심각히 공격받고있거나 박탈되고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언론의 자유는 인류가갖는 본래적자유라고 증언했다.

에이브롬즈씨는 세계각국의 인권현황을 매년 평가하는 국무성의 인권보고에는 인권향상에 도움을주고 있다고 증언하고 아르헨티나、칠레、우루과이、한국등의 인권현황은 지난 1~2년동안에 향상된것으로 알며 더나은 인권향상을 위해 이들나라들과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증언했다.

찰즈·퍼시미상원 외교위원장은 에이브롬즈씨가 초당적인 지지를받아 금주내에 상원의 인준을 얻게될것이라고 말했다.

銀行法 改正싸고 異見

"편중貸出규제…延拂수출등 타격"

全經聯、國會에 改正保留 긴급建議書

소수 대기업에대한 과다한 편중대출을 규제하기위해 정부가 이를 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銀行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대해 財界가 심한 반발을하면서 법개정을 보류해주도록 요청하고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全經聯은 17일 國會에긴급 건의서를 제출、정부가 제안한 은행법개정안중 특정기업(同一人)에대한 대출금이 은행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수없고、지급보증한도는 1백%를 넘지못하며、은행별로 5대거액대출업체에 대한 與信합계액이 은행자기자본의 5배를 상회하지못하도록 규정한 법개정안 제27조의규정을 보류해달라고요청했다.

전경련은 巨額偏重與信을 규제하는 은행법개정안 27조가 정부안대로 개정될경우①플랜트 造船등 연불수출이심대한 타격을입게되고 ②綜合商社들의 극심한 자금난으로 수출이 차질을 빚게되며③거액여신업체가 모두 戰略産業이기때문에 이들에대한 대출중단은 국민경제에 막대한손실을주는 결과를 빚게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개정안을 보류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종합상사와 조선、전설업체등 상당수의 主要業種 大企業들이 은행자기자본의 50% 이상을 대출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出금과 지급보증) 이 자기자본의 2백%를넘는 은행이 2개 (연말예상잔액기준)、1백~2백%가되는 은행이 2개、1백%를 초과하는 은행이 2개이고、50%를 초과하는 은행은 9개나 된다고 밝혔다.

모종합상사의 경우는 9월말 현재로 대출금이 은행자기자본의 48.8%에 달하고 지급보증은 3백3%나 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경우는 모은행의 특정기업1개사에 대한 지급보증액이 은행자기 자본의 1백30%나 되는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특정기업에대한 과다한 편중대출이 은행의건전성을 해치고 자금배분의 형평을 저해하는등 많은 부작용을 빚고있기때문에 그폐해를제거하기위해 同一人與信限度를 규제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현행법에는 同一人대출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25%이내로 묶고는있으나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받으면 무제한 나갈수있고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法的규제조항이 없다. 은행별 5대거액여신업체에 대한 여신제한규정도 현행법에는 없다.

◇대형조선회사별 자금대출 누계액현황

	'81년 9월말현재대출누계 거래은행	금액 (百萬원)	50/100을 초과한은행수	'81년12월말현재대출누계 거래은행	금액 (百萬원)	50/100을 초과한은행수	備考 (※81년 말總與信기준)
現代	4	19,567	1	4	46,674	4	대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이 200%선 거래처수가 2個
大宇	5	23,746	2	5	28,536	3	上同비율이 100~200%선인 거래처수가 2個
三星	7	49,079	2	7	64,132	2	上同수준이 100%선 초과 거래처수가 2個
造公	6	5,397	0	6	9,250	0	
計	22	97,789	5	22	148,592	9	3개월후에대출누계액이52% Point증가

社會漫評

어느쪽이 더 처지느냐…

地平線

行政운영에 過猶不及을 어쩌다보게된다.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심어야 할나무를 플라타너스등 속성수 위주로한다는 것이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거리를 푸르게 하려는데서온 아이디어이기는하나 좀 미흡한생각이 아닐까. ▼지금껏 시민들이 즐겨심어온 사철나무등 성장속도가 느린나무들은 조경효과가적어 내년부터는 현사시나무、플라타너스、포플러같은 큰키의 속성활엽수로수종을바꿔、식재량과 함께 식재방법도 지정한다는것이다. 이경우 간선도로나 관공서·학교등 큰건물은 별문제가없지만 일반가정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가나올수있다. 다크면 公園木인 플라타너스같이 30m가 넘는 巨木을 집마당에 심을 수도 없고、가정엔 劃一的인것보다 多樣性이 요구되기때문이다. ▼속성수로 이름난 현사시나무도 험벗은 우리나라산에 하루빨리 푸른옷을 입히려고 만들어낸 나무지 樹齡과 덩치로 보아 가로수나 관상수는 아니다. 또 10평방m에 3그루이상의교목과 5그루이상의 관목을 심도록하되 교목은 키3m이상、밑동의 직경5cm이상으로 지정된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것인데 어떻게 꼭 고른 나무만 심을수있겠는가. 공원이나 큰거리의 公園木 또는 街路樹라면 몰라도 일반가정에까지 樹種과 植栽방법을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하는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생길 염려가크다. ▼街路樹와 庭園樹는 근본적으로 다른것이다. 게다가 건축물의크기 집주인의趣向에 따라서도 좋아하는나무는 다르게마련이다. 향나무조그만 집마당이라면 향나무、목련、라일락、사철나무、앵도、철쭉、장미、개나리、백일홍정도이고 좀 큰집이라야 梅花나 단풍、동나무、주목、冬栢말고도 요즘 유행에따라 복숭아、감같은 과일나무를 심기 일쑤다. 아주 큰저택만이 가문비나무、은행나무、전나무、자작나무、느티나무、오동나무를 심는다. ▼플라타너스나 현사시를 서울같은 도시에서 정원에 심는사람은 아주 드물다. 속성수도 좋지만、경제수、장기수에 눈을 돌릴때도 됐다. 난장이나무를 골라심는것이 요즘세상이기도하다. 크다고다좋은 것은아니다. ▼파리의 가로수 마로니에나 베를린의 린덴바우(보리수)거리는 한에 만들어진것이 아니다. 느티는 공해에 약하고、벚나무는 벌레가 끓고、히말라야시더、가이즈가나무는 추위에 못견딘다. 플라타너스는 여름에는 좋아도 초겨울에 흉해보인다. 속성수는 못돼도 장기수인 은행같은 나무라야 서울거리에 맞을지모른다. 梅花한그루에 강산의 정신이 깃든다고하는데 행정에도 운치와 취향을 사랑할줄아는 여유가 아쉬운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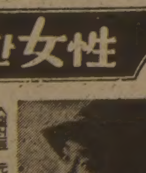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새벽1시
특별메뉴…
●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통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1월22.일자
주간女性



〈탤런트 元美京〉
슈바이처처럼 사는게 나의 소원이에요
淪落女 선도해온 여의사 朱惠蘭씨의 눈물美談
「사랑의 전화」의 고민事例集
여군 1番故金賢淑씨 생애
패션 디자이너의 異色 조사
스타 誕生 夜話 金芝美 편
테니스 갈록 崔富吉씨 집념
韓貞姬씨의「봉사 35년애환」
테마 特輯「맞벌이 夫婦」편
崔茂龍「再婚한다면 보통 女子와 하고싶다」
시해 당한지 86년만에 비로소 풀린 閔妃의 恨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1981년도
연.고대 성탄및 송년파티
년말을 맞이하여 사학의 쌍벽 연세대와 고려대의 교우동문을 모시는 우정의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981년12월5일(토요일)
장소 : 뉴-서울 칵테일 : 7PM
디 너 : 7 : 30PM
경품및 선물 : 칼라T V, 보석, 기타.
※모든 교우에게 독수리와 호랑이 디자인이 그려져 있는 KEY CHAIN을 드림.
연락처 : 연세대 총무 심홍 494-2309
고려대 총무 조병역 444-9755
후원 : 연세대학교 동문회
주최 : 고려대학교 교우회

MARVIN STARR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신 성 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GMAC이자율11월말까지 14.2%
TEX REBATE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PAUL SHIN)

나의 이력서

〈題字 尹致暎〉

윤치영 93

民主黨 新·舊派 정권다툼으로 일관
學生들은 날만새면 데모… 混亂가중

民主黨정권의 제2공화국은 시작부터 끝없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民主黨은 4·19후의 過渡정부에 이어 7·29總選에서 大勝했으나 지난날의 정치적 비극을 까마득히 잊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권쟁탈싸움으로 날을 지샜다. 7·29총선전부터 공천을 둘러싸고 치고받고 싸우던 新·舊派는 총선뒤엔 體制구성을 놓고 정치도의고 신의고 모두 팽개치고 싸움에 정신이 없었다. 국회는 8월들어 대통령에 尹潽善을 선출하고 내각책임제정부의 총리엔 張勉을 認准해 가까스로 체제를 구성했으나 新·舊派의 싸움은 폭력대결까지 빚기도했다.

新·舊派는 결국 民意를 외면하고 제몫을 갈라 分黨을 했다.

과거의 야당은 4·19직전마다 그들의 對與투쟁경력을 훈장처럼 내세우고 그들만이 自由黨에 의해 온갖 핍박을 당한듯 외쳤다. 그들이 고통을 당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50年代의 政局을 汚染시킨데는 그들도 책임이있고 반성을 해야만했다. 「4·19의 그늘」아래서 새체제를 맡았으면 그만큼 겸허하게 처신해야했다.

그래도 나는 民主黨이 自由黨에 의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당해온 정치적 희생자였기에 부디 단합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가길 빌었다. 나는 建國때부터 내각책임제는 반대였고 民主黨이 내거는 정책에도 큰 기대를 걸진 않았으나 그래도 그 인물들로 보아 自由黨보다는 낫겠지… 하는 기대를 걸었었다. 지난세월 그토록 설움을 받았으면 앞날을 위해선 단결해 國事를 이끌고가야될 그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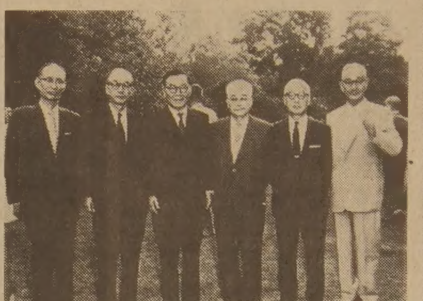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는가. 그들에겐 국가의 安寧과 나라살림에 대한 걱정은 뒷전에 있었다. 당장의 權慾에 눈이 어두워 派爭만 일삼았다. 툭하면 內閣이 흔들려 깨어지는등 장관자리하나 안정이 안됐다.

끊임없는 데모

당시 고사까·젠따로(小坂善太郞)日本외상과함께 訪韓했던 일본국회의원은 나에게 『왜 우릴초청했는지 알수 없군요. 너무 무질서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창피한 생각이들어 자리를 피했다.

한번은 半島호텔지하이발소에 이발하러갔다가 張勉총리를 만났다. 張총리는 당시 반도호텔 8층에 사무실을 갖고있었다. 몰락한 李起鵬도 앞서 반도호텔 7층인가, 8층에 사무실을 갖고있었다는 생각을하니 무대는 역시 좁구나 싶었다. 張총리는 나를보더니『잘좀 도와주시오』라고 말을 건넸다. 난『그렇게 갈망하던 내각책임제가 됐으니 잘해보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 말한다면 치안부터 안정시키길 바랍니다』고 한마디를 했다. 그때 이발소에서 본것이 그와는 마지막 대면이었다. 나는 張勉과는 6·25동란중 유엔에서 한때 일한것을 빼고는 별인연이 없었으나 그래도 그가 自由黨치하의 부통령으로 있을때는 쓸쓸한 西小門공관에 가끔씩 들러 안부를 물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당 부통령을 찾아보길 꺼렸으나 난 예의상 연말연시등 때마다 그를찾아 인사를 했었다. 그러나 총리시절 그를 찾아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張勉은 정권자체가 그랬던것 처럼 政事에 무능했다. 외교관이라면 몰라도 그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지도력이 없었다.

제2공화국당시 청와대엔 꼭한번 가봤다. 조카인 尹潽善 대통령의 생일때 尹日善, 尹泳善등 친척들과 같이 생일축하를 하러 들어갔을 때였다. 우리는 그때 늦여름의 햇볕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하며 오랜만의 회포를 풀었다.



◇4·19는 우리집안에서 대통령을 낳는 기회를 맞게됐다. 조카인 尹潽善대통령(당시)의 생일날 청와대에서 만난 가족들. 左로부터 조카 尹日善(원자력원장) 筆者, 尹대통령, 조카從兄尹致旺(육군소장) 從弟 尹致昌(駐英대사) 조카 尹泳善(前농림장관).

제2공화국은 한해를 넘기면서도 혼란의 연속이었다. 날만 새면 데모였다. 부상한학생들이 의사당에까지 진입하고 곳곳에서 횃불시위가 번지고 좌익 정치인들이 머리를 들고 시위, 폭력, 선동, 혼란이 끊일줄 몰랐다. 정치인들이 의사당에서 학생들을 무서워해 벌벌 떨고 소신있는 얘기 한마디 못했으니 나라일이 온전할리 없었다. 경제는 더욱 파탄이고 데모는 熱病처럼 번져 고등학생들도 스승배척을 외치고 야단이었다. 그래놓고 제2공화국때 「民主」를 구가했다니,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혼란이었다.

새벽녘 우유배달부가 초인종을누를때 죄없는 사람이 조바심하는 그런 사회도 없어야하지만 혼란으로 民生이 거덜나고 民心이 흉흉한 그런 사회도 없어야한다.

나라는 안팎에서 어떤 危機가 닥칠지모를 累卵之勢에 있었다.

나는 동지들과함께 혼란의위기를 막기로마음먹었다. 李奎甲, 任永信, 金斗漢, 潘星煥, 孫瑱, 鄭泰碩, 劉明郁등 동지들과함께 鍾路1街 우주다방등을 중심으로모여 일을도모했다. 우리는 무분별한 데모를 저지했다. 劉明郁같은 동지는 특히서울, 釜山 大邱등지에서 횃불데모를 분쇄했다.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建國전후해 反共운동을같이했던 人脈을 중심으로「救國의 方策」을 쓰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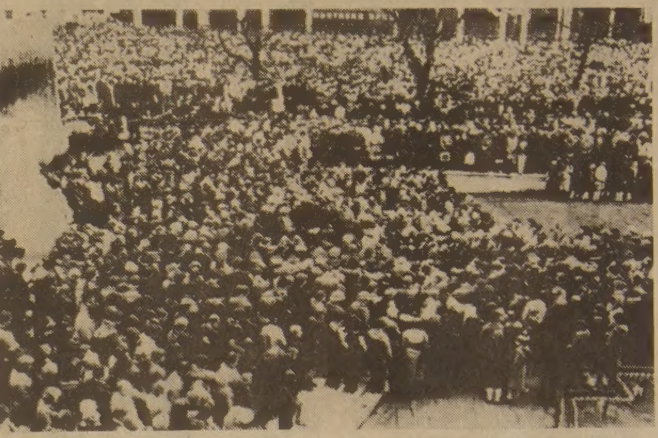
張勉정권을 뒤집지않으면 나라가 쓰러질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우리가 자금준비관계로 계획을 늦추고 있던중 5·16군사혁명이일어났다. 5·16은 우리가 계획한것보다 1개월반 앞서 일어났다.

新敎「反英」으로 急旋回

北아일랜드 잇단 IRA테러에 強硬對處

"더이상 당할수만은 없다" 에이레 合併說에도 자극

英선 內亂방지위해 軍增派



◇北아일랜드의 신교도들이 17일 벨파스트시내의 전사자기념비주위에 모여 가톨릭系인 에이레共和軍(IRA)에 의해 살해된 신교도지도자 故로버트·브래드포드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있다. 【벨파스트17일AP電=聯合】

북아일랜드신교도들은 17일 IRA(에이레공화군)에 의해 살해된 신교도지도자로버트·브래드포드의원장례식에 참석한영국의 북아일랜드담당국무상 제임즈·프라이어에 돌을던졌다. 수백명의 강경신교도들은 프라이어를 에워싸고 밀치며 발로차며 욕박질렀고 프라이어는 경호원들에의해 교회안으로 피신했다가 1시간후 겨우 빠져나왔다.

17일밤에도 신교도방위군 1명이 IRA에의해 살해돼 지난10일동안 모두 4명의 신교도가 쓰러졌다.

IRA가 단식투쟁방식에서 테러투쟁노선으로 급회전한 지난10월중순이후 연이은 IRA테러를 보고만있던 신교도들은 드디어 미온적인영국정부의 태도에 분노한 것이다.

「앉아서 죽을 수는없다」며 영국군이 치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4만명의 자체 얼스터방위군이 나서겠다는 최후통첩도 밝혔다.

이들은 대처수상이 북아일랜드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신교도들을 아일랜드에 매도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주 대처영국수상과 피츠제럴드아일랜드수상은 북아일랜드의 종교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위한 1단계조치로 「英·아일랜드공동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다.

北아일랜드의 남부 6개군을 아일랜드에 통합시키는것을 궁극적인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종교분쟁의 주역은 구교도가 아니라 신교도로 변했다.

신교도지도자 프레이슬리의원은 『우리는 참았다. 우리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선언, 북아일랜드신교도들은 17일 총파업과 대규모시위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일촉즉발의 신·구교도간의 대규모 유혈사태위기속에 피츠제럴드 아일랜드 수상은 신교도들의 진정을 호소하면서 『IRA전략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실IRA는 테러로 신교도들의 분노를 유발, 북아일랜드를 내전으로 몰아넣음으로써 대처수상이 구교도들에게 무릎을 꿇기를 노리고 있는것이다.

영국정부는 18일 6백여명의 영국군을 북아일랜드에 추가투입, 현재 북아일랜드에 주둔하고있는 영국군을 1만7천명으로 보강했다.

대처수상은 反英기치를 쳐든 신교도들을 유화하기위해 IRA테러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지만 그에앞서 신교도들의 반란을 어떻게 막을수 있는가가 더욱 큰문제가 됐다.

1백년가까이 끓어온 북아일랜드 신·구교도간의 「피의 종교분쟁」은 크리스머스를 앞두고 뜨겁게발화하고있다. 【崔海雲기자】

國際焦点

B1生産計劃 압도적承認
美上院歲出委 레이건提案에

【워싱턴17日AP=聯合】미상원세출위원회는 17일 레이건 대통령이 제출한 말썽많은 B1폭격기 1백대 생산계획을 압도적 다수로 승인했다.

리처드·딜로어 미국방차관은 이날 표결에앞서 세출위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B1폭격기및 스텔드폭격기를 통합시킨 전략 전력이 구현비용으로 오는90년대에는 소련방공망을 침투할수있다고 말했다.

美上院 外援法승인 72억5천만弗 規模

【워싱턴18日AP=聯合】美상원은 17일 총규모72억5천만달러의 외환법안을 승인했다. 上院본회의는 이날 對짐바브웨원조에 배정된 7천5백만달러를 이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北韓군사고문관들이 철수할때까지 보류해야한다는 제시·헬름즈의원(共·노드캐롤라이나)의 수정안을 부결시킨후 이법안을 57—33으로 가결시켰다.

헬름즈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에서 『北韓에서 시행되고있는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가장잔인무도한것중의하나』라고지적했다.

CIA 統一敎情報 美대법원 公開보류

【워싱턴18日UPI=聯合】미대법원은 18일 중앙정보국(CIA)의 『민감한정보자료』를 文鮮明목사의 統一敎에 인계하도록 명령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봉쇄했다.

美、蘇에 「0의選擇」제의
西歐배치 核武器 완전撤收위해

【워싱턴17日AP=聯合】로널드 레이건 미대통령은 18일 주요외교정책연설을통해 유럽에 배치된 중거리핵미사일의 완전제거를 요구하는 이른바 『0의 선택』을 소련에 제의할것이라고 美관리들이 17일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18일 상오10시(한국시간 19일0시)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주요외교정책연설을할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백악관관리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오는30일 제네바에서 열릴 美·蘇간의 유럽배치 핵무기감축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국무성관리는 소련의 유럽배치중거리핵미사일 철수를 조건으로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유럽배치계획을 취소하는『0의선택』을 레이건 대통령이 제의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관리는 유럽을 공격목표로하는 모든 중거리핵미사일을 무의 상태로 완전제거하는 이『0의선택』개념이 반전·반핵무드에 젖은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는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데는 힘겨운 협상이 가로놓여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즈지는 17일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여 만일 소련측이『0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미국은 소련SS20및 여타 미사일의 탄두수를 감축하는 대신 미국 퍼싱Ⅱ미사일과 지상배치 크루즈(순항) 미사일의 핵탄두배치를 제한하는보다 제한된 협정을 제의할것이라고 보도했다.

"핵무기亞洲配置안해
美국무성 現時點서 거론은 시기상조"

【워싱턴17日聯=聯合】미국은 미핵무기의 아시아배치가능성을 거론하는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생각하고있다고 미국무성의 한 대변인이 16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이 크루즈(순항) 미사일이나 기타 전역핵무기를 아시아에 배치할지도 모른다고 전한 한 일본신문의 지난주 보도에 논평, 『현시점에서 이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상황이 성숙했을때 핵무기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신문들은 유진·로스토 美무기통제군축국장의 기자회견발언을근거로 미핵무기의 아시아 배치가능성을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로스토국장의 발언은 핵무기를 아시아에 배치할 필요가 있을때 이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를 결정할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앨런 1千弗사건 FBI介入
本人에 通告않고 搜査 지시
워싱턴포스트 報道

【워싱턴17日=曹淳煥특파원】백악관의 베이커비서실장, 미즈 대통령고문, 디버비서실차장등「3거두」의 한사람이 일본부인·잡지로부터 1천달러를 영수한「앨런사건」을 본인에게 통고하지않고 美FBI가 수사토록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7일 보도했다.

낸시여사는 그가관련된 인터뷰로 미행정부를 곤란하게 만든데격노하고있으며 또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부인이 말썽에 휘말린데대해 역시 격노하고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백악관 소식통을인용 보도했다.

美勞組 강력促求
레이거노믹스 抛棄

【뉴욕17日聯=聯合】美노조대표들은 17일 레이건 대통령에게 그의 경제계획을 포기하고 수입제한및 정부지원직업창출을 통해 미국을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北傀、중포·탱크등 짐바브웨 武器공급

【솔즈버리17日AP=聯合】북괴는 최근 짐바브웨군에 중포, T64형탱크, 병력수송장갑차(APC)를 비롯한 현대식 전투장비들을 공급했으며 남아공요원들이 전투장비들을 수송하는 짐바브웨수송열차를 폭파하려고 세차례나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유엔總長 또못뽑아
中共·美서거부권

【유엔본부17日UPI=聯合】유엔안보리는 17일 차기유엔사무총장선출을 위한 8차례의 비밀투표를 실시했으나 3次연임을 노리는 쿠르트·발트하임 現사무총장에 대해서는중공이, 그리고 제3세계의 지원을 받는 살림·아메드·살림 탄자니아 외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각각 거부권을 행사, 차기사무총장선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經濟5년計劃 수정
蘇, 最高會議서示唆

【모스크바17日AP=聯合】소련최고회의 의회가 1천5백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모스크바에서 개막됐으며 소련지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련이 금년도 주요경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현5개년계획 목표를 수정하지 않을수 없게됐음을 시사했다.

니콜라이·바이바코프 제1부수상겸 국가계획위 의장은 이날 최고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금년도 농업·석탄및 철강부문의 계획목표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히고 85년에 끝나는 현5개년계획의 자본투자비율을 10.4%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라크空中戰
유전지대 후제스탄

【니코시아(키프로스) 17日AP=聯合】이란과 이라크는 17일 이란남부유전지대인 후제스탄省상공에서 치열한 공중전을벌였다고양측이밝혔다.

流星의 賦 〈23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④

『그렇다. 소서행장(小西行長)을 불러라. 행장을 불러 대마도(對馬島)의 종의조(宗義調)를 데리고 오도록 하라』

고 수길이 외쳤다.

수길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자기의 세계를 한꺼번에 우주(宇宙)로 확대시키는 천재형(天才型)의 사나이다.

『대마도의 종의조를 불러 오겠읍니다만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사실 종의조는 그때까진 수길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는 하까다(博多)와 사까이(堺)의 상인들과 손을 잡고 조선무역(朝鮮貿易)에 종사하고 있는, 무장(武將)이라고 하기보다 정상(政商)이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조선왕(朝鮮王)과는 친밀한 사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만큼 종의조가 신례(臣禮)를 취해 종군(從軍)하겠다고 했을땐 수길이 무척 기뻤던 것인데, 그 종의조가 소서행장을 따라 사시끼의 진영을 찾아오자

『이것 대마도수(對馬島守), 내가 수길이다. 얼굴을 들라』

고 뽐내 놓곤 물었다.

『자넨 사쓰마의 도진(島津)이 어째서 아직도 그 목을 부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는가』

물론 종의조의 대답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착상(着想)을 쏟아놓기 위해서다.

『도진이란 놈은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한 가증스런 놈이다. 그래서 내가 놈의 거성(居城), 가고시마(鹿兒島)와의 상거, 5, 6리 되는 곳에 말을 세우고, 놈의 목을 베려고 하자 놈은 대가리를 움켜쥐고 절로 도망쳐버리지 않았겠나. 한참하…그리고 나와선 항복을 하는데 그땐 중대가리가 되어 있었어. 그래 중대가리를 하고 빌어올리는 꼴이 불쌍하더라. 그래 앞으론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잘 타이르고 놓아주었지. 이로써 내 하는 처사를 잘 알겠지?』

『예, 진정코 꽃도 열매도 있는 처사라고 감동하였읍니다』

하고 종의조가 조아렸다.

『그런가, 그럼 좋다. 내가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자넨 고려왕(高麗王; 수길은 조선왕을 꼭 이렇게 불렀다)과 친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그런가』

『친하다는 말은 좀 뭣합니다만 몇번인가 그곳에 가서 만난 적은 있읍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자넨 곧 고려왕에게 사자(使者)를 보내라. 구주일원(九州一圓)을 손에 넣은 수길이 사쓰마의 영주 도진의 목을 치려다가, 목이 날아가는 직전 중이 되어 사죄를 하기에, 그의 딸 구수(龜壽)를 인질로 잡고 용서해 주었다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하루 빨리 일본 조정(日本朝廷)에 출사(出仕)하도록 일러라』

『그, 그…고려왕에게 말입니까』

하고 종의조는 아연했다.

『뭘 놀랄게 있는가. 구주에서 관록치던 도진일족(島津一族)을 감쪽같이 항복시킨 수길이 고려왕쯤을 정벌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옵니다. 결코 그런게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빨리 사자를 보내라. 그렇지, 빠른 배가 좋겠군. 빠른 배를 태워 보내라. 만일 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초엔 정벌군을 보낸다고 일러라』

『내년 초에 고려왕을…』

종의조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메아리
街路燈 아래

「가로수가 있고 책이 있다. 그리고 여인네들이 지나 간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고 작가 아나톨·프랑스는 센강변을 자랑했었다. 어둠이 깃들고 가로등이 여기밝혀지면 거리의 낭만은 한결 훈훈하게 번져 갈것이다.

가로등은 도시인의 마음이며 또 感傷이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걷는 밤길엔 여유와 보람이 뒤따른다. 우정과 애정을 나누는 길이 밤거리다. 은은한 불빛 아래 나란히 지나는 연인들의 모습은 그대로 젊음이 投影된「영상」으로 비친다.

가로등은 도시의 추억이고 향수다. 스크린의 갈등적인 장면은 흔히 가로등 아래서 전개된다. 실향인은 그 불빛에서 고향의 얼굴을 그릴것이다.

오일쇼크가「도시의 마음」을 움츠려 들게 한지 오래다. 節電바람은 네온사인을 가물거리게 했고 접객업소의 차광시설을 철거시켰다. 극장의 상오 공연도 금지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밤길의 마음을 삭막하게 한것은 어두운 가로등이었다.

가로등이 지금보다 좀더 환하다면 우리의 마음도 훨씬 따뜻하고 밝아질 것만 같다.

가로등은 도시의 밤눈이다. 교통의 눈이자 防犯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서울의 밤거리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큼 어둡다. 지금 시내에 세워져 있는 가로등수는 2만여개」. 이가운데 8천여개는 눈을 감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내의 교통사고중 약 40%가 하오6시에서 자정사이에 발생한 밤길사고로 알려진다. 이시간대의 윤화 사망자도 45%선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손수운전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 눈앞을 어림하기 어려운 길에서 운전을 한다는것은 위험이 따를수 밖에 없다. 밤길에선 운전자가 상향조명을 하다가 마주오는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하향조명을 해야한다. 그렇지만 가로등이 어두운 탓으로 무리하게 상향조명을 한채 질주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야간교통사고의 함정이다.

어두운 거리는 행인들에게도 또다른 불안감을 준다. 도둑과 폭력배의 위협이 두렵다. 물론 절약이 중요하지만 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주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되겠다. 마음을 훈훈하게, 눈을 더 밝게…. 시민들은 밝은 서울을 원하고 있다.

女性界 소식

婚禮풍습 比較강좌

사단법인 국민문화연구소는 11일부터 12월16일까지 매주 수요일 하오6시30분 명동성당내 사도회관에서「동서양의 생활문화와 혼례풍습의 비교고찰」이란주제로젊은이를위한특별강좌를갖는다.

란체스터 새댁교실

란체스터 새댁교실은 19일~26일 행복예식장에서 여성특강을 마련, 수강생을 모집하고있다. 강사는 洪淑子·한갑수·安秉煜·鄭光謨·李炳龍씨등. 문의전화②2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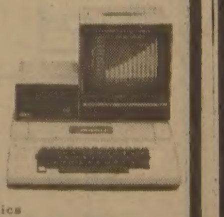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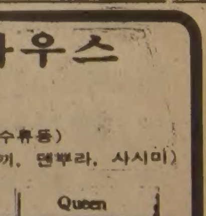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영림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셔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416) 222—9480

MARY KAY

여성의 아름다움은 현명한 화장품 선택에서! 메리케이는 가장 품위있고 저렴하며 어떤 타입의 피부에도 소망을 이루어 드립니다.
X-마스 선물용 스페셜 페캐지가 다양하게 나왔읍니다.
(Free wrapping+delivery)
겨울철 피부미용 상담환영
파타임 원하시는 분은
270—4175로 연락요망
Sales Director
김 진 아

김 진 아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코너)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電話걸때에도 조심조심…
最惡경우 癌까지걸린다

送話器에 眞菌우글
公衆전화·茶房·학교順

사람들이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전화송화기에 2백3주(株)나 되는 각종 진균(眞菌)이 득실거리고 있으며 이균들은 전화사용자에게 호흡기감염증이나 이비인후과질환 또는 암(癌)까지 유발시키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建國大생물학과교수로 봉직하다 지난4월 타계한 故 李培咸박사가 柳寬熙 최영희 채희병씨등 대학원생들과 지난2년동안 전국 1백1개소의 전화기서 균주(菌株)를 채취、배양분석한 결과 밝혀낸 것이다.

균은 서울 大邱 群山 忠州 濟州등 5개도시의 가정 다방 사무실 상점및 공중전화의 송화기에서 채취했는데 병원균을포함한 진균을 가장많이 가지고있는 전화는 공중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전화는 전체 발견된 균의 25·1%인 51주의 진균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으며 다음은 다방전화로 전체균의 19·7%인 40주를 지니고있어 체신당국이나 접객업소의 철저한 보건관리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상점전화로 35주(전체의17·2%) 학교전화 32주(15·7%) 사무실전화 26주(12·8%) 가정전화 19주(9·3%)여서 사용빈도가 높은 전화일수록 각종 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의경우 12곳에서 27주 大邱는 23곳에서 30주 群山은 25곳에서 46주 忠州는 35곳에서 82주 濟州는 6곳에서 18주가 검출되어 균검출 빈도를 보면 濟州시내 전화기에서 가장 높은 빈도(28%)를 보였으며 서울과 忠州에선 같은 빈도(22%)를 나타냈고 大邱가 가장 낮은 11%였다.

또 이들 균은 다른 병원균처럼 겨울철에는 소멸되거나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지 않는것으로 밝혀졌는데 여름철에는 전체균의 50·5%가、겨울철에는 전체의 49·5%가 검출되어 계절에 따른 증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검출된 진균의 종류는 페니실리움속(屬) 1백3주、미확인균 44주、A·푸미가투스속 14주、아스페르길루스속 9주등 모두 14속 2백3주였다.

故 李培咸박사팀 채취 培養분석

◇공중전화 송화기에 가장 많은 균이 붙어있는것으로 밝혀져 체신부와 사용자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季節안타는 疾病温床
호흡기감염 病原菌 가장많아

그런데 이 진균들중에는 호흡기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 병원균인 아스페르길루스와 이비인후과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흑색국균、체내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이 되는 오크라톡신을 내뿜는 A·오크라시오스균、각종진균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A·니들란스균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질환을 유발시켰거나 유발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외의 균으로 식물의병원균인 알테르나리아속、섬유소 분해능력이강한 트리코데르마속의 균도 검출되었으며 가장많은 페니실리움속균중엔 항생물질을 생성하는 균이 아닌 병원균도 상당수였다.

미확인된 44주는 지금까지 발견된 眞菌들과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엔 각종 病原性 균종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확인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아직도 각종 병원균의 미생물이 공기감염되고 있는데다 문화의발달로 전화기의 사용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전화기 감염」도 국민보건위생의 새로운 문제점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철저한 보건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市內버스가 가장 불친절
亂暴운전·안내양 떠밀기 예사
市外버스 18%·철도 15%·택시 6% 전체 51%
交通部 申告센터 1년集計

버스、택시、기차등 대중교통수단 가운데 시내버스가 가장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을 하는등 서비스가 나쁜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내버스 안내양들은 대부분 승객들에게 반말을하며 승하차때 떠밀기、지그잭식운전、승객유치를위한 추월경쟁、주정차불이행、정류장외 정차등으로 시민들에게큰 불편을 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교통부에설치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지난 1년동안 전국에서 신고된 3만4천93건을 집계분석한 결과 밝혀진것으로 시내버스가 1만7천4백87건으로 전체신고건수의 51·3%를 차지했다.

다음은 시외버스 6천2백92건(18·5%) 철도 5천1백55건(15·1%) 택시 2천2백41건(6·5%) 고속버스 4백96건(1·5%) 지하철 4백38건(1·3%) 해운 1백96건(0·5%) 항공30건(0·1%) 기타 1천7백68건(5·1%)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차종에 관계없이 불친절이 가장많아 5천1백14건(16%)이었으며▲과속난폭운전이 3천4백10건(10%)▲연발착 2천7백27건(8%)▲정차불이행 2천1백76건(7%)▲승차거부 부당요금 정류장외 정차가 각 5%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건의사항중에는▲시외버스학생할인제및 회수권발매▲방학기간중 학생버스매표소 확대▲역·터미널대합실의 난방및 화장실 개선▲심신장애자 매표창구 개설 ▲全州~光州간고속버스 안내양 승무요망등이 포함돼있는데 교통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교통부는고발내용중▲1만7천6백30건은 시정됐고▲1천9백68건은 경고 ▲5백41건은 영업정지 ▲3백59건은 운행정지등의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만65건에 대해서는 징계 주의 면직 벌금등의 조치를 취했다.

「老人능력銀行」설치
釜山 60세以上노인 厚生福祉위해

【釜山=聯】釜山市는 18일 60세이상 노인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노인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시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각구청단위로 시내 10개소에「노인 능력 은행」을 설치、구청·동·기업체등의 협조를 받아 노인능력에 알맞는 가로청소·꽃비기·반담관리등의 직업을 알선、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없애주고 사회참여의식을 높여 주기로 했다.

또 오는 86년까지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에 56개소의 경로당을 추가로 짓기로 하고 각구 보건소를 통해 노인 무료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노인병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시는 또 노인대학운영을 활성화시키기위해 학구단위로 연간 1천8백만원의 노인교육비를 보조해 노인들의 정신교육을강화시키고 효자·효부 표창등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경로심을 심어주기로 했다.

호박1개에 43kg
慶北「豊年농사展示會」서

【大邱=聯】풍년이 한자리에 모였다。호박의 무게가 어른 몸무게와 비슷하고 배추한포기가 한사람의 월동용 김장감으로 넉넉하다.

사과와 배가 어린이 머리통만하고 싱싱한 산나물과 소채류가 계절의 미각을 돋우고 있다.

慶北道가 18일부터 20일까지 도청광장에서 개최하고있는「풍년농사 전시회」ー이 전시장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생산된 각종 특산물이 제고장의 풍년을 뽐내고 있다. 과일 36종 채소 65종 특용작물 85종 약초65종 축산물 48종 농산물가공품83종등 모두 3백81종.

이중 盈德郡 蓄水面 新基洞 林淳達씨(46)가 출품한 호박은 무게가 43kg으로 어지간히 날씬한 여자의 체중과 맞먹고 장정이 겨우 안아올릴정도여서 관람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풍년농사전시회。

東大門署 金형사 구속
절도被疑者에 돈받고 造作

서울지검 南部지청 鄭陳燮검사는 18일 서울東大門경찰서 수사과형사계 金鍾五순경(32)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서울南部경찰서 형사계 徐모형사와 尹모형사등 2명의 경찰관의 공모여부를 수사하고있다.

검찰에따르면 金순경은 지난7월29일 절도사건과 관련 상습장물취득혐의로 자신이 검거한 서울 冠岳區新林洞10의466 주유당 금은방주인 任淳浚씨(26)로부터『잘봐달라』는 부탁을받고 4차례에걸쳐 현금1백만원을 받은뒤 任씨의죄명을 업무상장물취득혐의로 가볍게꾸며 지난 10월20일 서울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南部지청이 任씨에게 장물을판 절도범을 잡기위해 계속수사를 벌이던중 건설회사 사장행세를 하며 1억여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낮털이 전문절도범 金鍾鎬씨(25·절도전과2범·서울冠岳區新林2洞1110의25)를 검거하고 金의자백에따라 金이 훔친물건을 사들였던 다른 장물아비인 금은방 보금당주인 朴泰俊씨(35·서울冠岳區新林6洞354)를 붙잡음으로써 밝혀진것.

검찰의 수사결과 절도범 金은 지난6월20일 하오2시께 서울江南區論峴洞 신모씨(46)집에서 훔친 화불손목시계(싯가70만원)를 장물아비 朴씨에게 팔았고 朴씨는 이 시계를 당시 자신의 금은방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任씨를 통해 남대문시장에 팔려다 任씨만 경찰에 검거됐었다.

任씨가 검거되자 朴씨는 평소 친분이있는 徐·尹형사를 통해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던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절도범 金은 설도건설 사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80년4월부터 지금까지 서울冠岳區 江南區、九老區일대를 무대로 고급주택만골라 월평균 5~6차례씩 모두 1억여원어치를 털어왔는데 金이 경영하는 설도건설은 자본금 3천만원에 설립、지난79년12월 K종합건설 牛月현장의 20톤짜리 콘크리트시공공사를 9백만원에 하청맡는등 지난 6월까지 전국각지 건설공사 5천여만원 어치를 하청받았고 전무、부장등 6명의 직원을 두고있었다.

金은 검찰에서 자신이경영하는 건설회사가 공사를제대로 맡지 못해 사채와 노임체불이 늘어나게 되자 이를갚기위해 절도행각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西江大生2명 징역1년선고

서울형사지법 崔秉鶴판사는 18일 교내에서 시위를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文得基피고인(西江大)과 李炳祐피고인(〃)에게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과 징역10월을 각각선고했다.

간첩孫裕炯 死刑
3명도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申性澤부장판사)는17일 日本거점 우회침투간첩단사건에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주범 孫裕炯피고인(52·日本大阪市生野區生野東3의19의23)에게 간첩죄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련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에서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같다.

▲孫鍾奎(52)=징역2년 자격정지2년▲孫裕升(44·전한전직원)=징역1년 자격정지1년▲孫裕培(44·日本밀항자)=징역1년 자격정지1년

어음12억 남발 犯人1명 구속

【釜山=聯】부산東萊경찰서는 18일 예금잔고도 없이 계획적으로 12억여원의 약속어음을 남발한 崔大植씨(45·海雲臺區中1洞1162)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어음브로커 노주필(40·주거부정)、임기수씨(42·주거부정)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80년10월5일을 부도일자로 정한뒤 80년7월부터 80년10월16일까지 2~3개월 기한의 약속어음 2백61장 액면 12억2천5백79만원을 발행、어음브로커 노씨와 임씨등에게 액면가의 8~10%를 받고 넘겨주었으며 노씨와 임씨는 이약속어음을 상품대금으로 사용하거나서울·부산 경남지방의 또다른 브로커들에게 액면가의 15~20%를 받고 넘긴 혐의를받고있다.

夫婦싸움 아내殺害
30代男便 투신自殺

【大邱=聯】18일상오7시께 大邱市壽城區中洞 光明맨션아파트B동306호 李炳閏씨(32·범시직물사장)집에서 李씨가 부부싸움끝에 부인 尙在賢씨(28)를 식칼로 마구 찔러 숨지게하고 자신도 3층아래로투신자살했다.

李씨는 지난해 尙씨와 결혼한뒤 부인과 장모가 결탁、재산을 빼돌리고있다면서 가정불화가 잦았는데 이날새벽에도 부부싸움을하던중 길이 20㎝의 식칼로 부인의 복부등을 찔러 숨지게하고 유서를 남겨놓은채 자살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李씨부부는 평소 부인이 가출을 자주해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李씨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직물공장을 경영해왔다.

李씨가 부모앞으로 남긴 유서에서『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싫어서 죽였다』는등의 내용을 적었다.

한밤 休電工事안해
韓電, 겨울난방등 不便덜게

한전은 오는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월동기간중 현재전국적으로 실시중인 밤0시부터 새벽6시사이의 심야휴전공사를 중지키로했다.

한전의 이같은 조치는 심야휴전에따른 겨울철 난방과 그밖의 전기 사용상의 불편을 덜기위한것이다.

失踪여대생、被殺
光州 野山묘지서 목졸린채

【光州=聯】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간뒤 실종된 光州성인경상전문대학 1년 金姬양(20)이 실종 12일만인 17일 하오 3시께 光州市西區松岩洞 천주교 공동묘지야산에서 피살체로 발견됐다.

金양의 시체는 이날 인근야산에서 훈련을하던 예비군들이 발견、경찰에 신고했는데 18일 상오 가족들에 의해 신원이 확인됐다.

金양은 발가 벗겨진 채 브러지어끈으로 목이 졸려 반듯이 누워 있었으며 타박상으로 얼굴이 심하게 상해 있었다.

金양은 지난6일 상오11시 30분께 학교에 간다며 언니 金모씨(29·光州市西區月山4洞)집을 나간뒤 실종됐었다.

경찰은 光州西部경찰서 白雲동파출소에 수사본부를설치、수사를 펴고 있다.

◇피살체로 발견된 金姬양

농아·盲人에도 海外이주 許容
閣議의결

농아 맹자도 해외이주를할 수있게됐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외이주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외이주를 전면금지해왔던 농아 맹자도 앞으로는 일정자격을 갖추고 수입국에서 수락하면 이주를 허가해주기로했다.

또 종전에는 재단법인만이해외이주 알선업을 할수있었던 것을 기본자산 3억원이상등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이면가능하게했으며 해외이주를 촉진하기위해 알선업체에대해 일정수이상의해외이주자를의무적으로알선송출토록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기및위장등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송출했을경우 지금까지 징역 4년이하 또는 4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던것을 5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모눈종이위의 生 <257>

趙善作 作 / 金光培 畵

모눈종이위의 生㉔

그해 시월 어느날、J시인은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시화전(詩畵展)을 열고 있었다。그의 두번째 이며 연작시집(連作詩集)인 (회색(灰色) 노우트)의 출간을 기념하여 그 시집에 실린 시들 중 서른편의 시를 골라 시화로 꾸민 것이었다。그 서른 점의 시화 중 한 점은 화랑에 내걸릴 때부터 팔렸다는 표시의 은지(銀紙)가 한 장 붙어 있었는데 그 시는 (미스 A에게 주는 노래)라는 부제(副題)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시화는 이미 팔린 것이 아니라 J시인이 미스 A에게 특별히 선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꾸민 것이었다。전시 기간 동안 다른 작품들과 함께 화랑에 전시 했다가 전시 기간이 지나면 미스 A에게 전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전시회의 마지막 날 J시인은 미스 A가 벌써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만난 것이다.

그날 오후 J시인은 미스 A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은행 근처의 다방에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지 거의 반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고、뭔가 그녀에게 빚지고 있다는 느낌을 그는 내내 떨쳐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그런데 병원에서 전화를 받은 아가씨는 미스 A가 벌써 오래 전 부터 그곳에 있지 않다는 대답이었다。J시인이 낭패스런 기색으로 잠자코 있자 상대편은 안됐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누구시냐、무슨 일로 찾느냐고 묻고 나서、(J시인은、이쪽은 시를 쓰는 사람이며 미스 A에게 뭔가 선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미스 A가 몇개월 전에 사망했음을 알려 준 것이다.

J시인은 그것만으로도 충격이 너무 커서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그게 정말이냐、무슨 일로 그렇게 됐느냐、그게 언제냐고 허둥지둥 물었고、상대편 아가씨는 이런 것까지 말해 주어도 괜찮은가 어떤가 망설이는 듯하더니、자살했다고 간단히 말해 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J시인은 귀에서 느닷없는 그리고 비명처럼 아주 높은 이명(耳鳴)이 생겨 송수화기를 든 채 잠시 멍하게 서 있었다。

그런 그를 옆에서 보고 있던 화랑의 아가씨가 의아해하며 왜 그러시느냐고 물어서야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려 송수화기를 내려 놓았다。

그날 저녁 화랑으로(도서출판·아람)의 P사장、소설가 M씨、영화감독 U씨、그리고 안경을 낀 신문기자등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고、좀 늦게 소설가 한민일도 나타났다。J시인이 전시를 끝내면서 한잔 내겠다고 신세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두었기 때문인데 모인 사람은 거의 스무명쯤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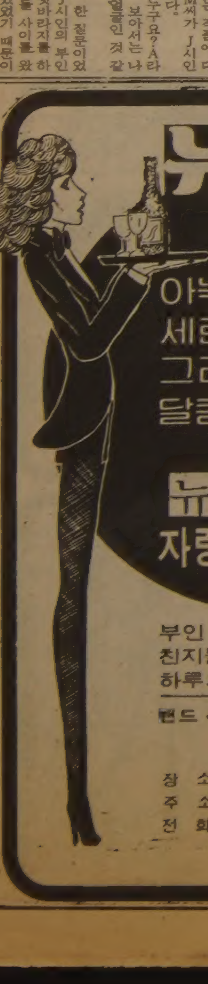
술자리는 바로 화랑에서 벌어졌다。화랑의 한가운데 탁자 몇개를 여기저기 흩어놓고 한잔씩 서서 마시는 정도의 간단한 리셉션 형식이었다.

얼마동안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진행되었다。술잔이 오고갔고 유쾌한 잡담들이 오고갔으며 한 시간쯤 지나서는 시간이 바쁜 사람들이 먼저 철수했기 때문에 참석자는 열서너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때쯤이었다。아직도 그곳 벽에 걸려 있는 (미스 A에게 주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는 작품에 대해서 소설가 M씨가 J시인에게 물은 것이다.

『미스A가 누구요? A라는 이니셜로 보아서는 나도 알 듯한 얼굴인 것 같은데…』

퍽 은밀하게 한 질문이었는데 그것은 J시인의 부인이 리셉션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뉴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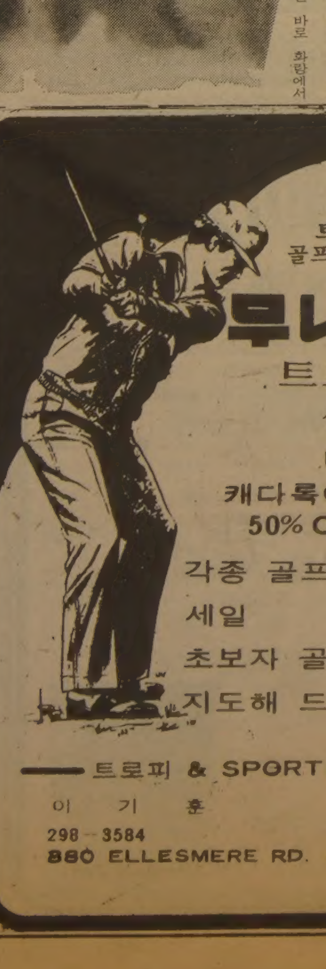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도넛샵: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1⁄2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3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5,500, 주매상: $7,000,
주매상: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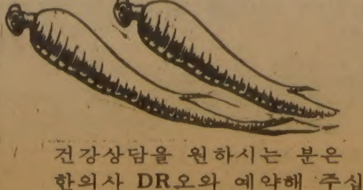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中國良藥 大量供應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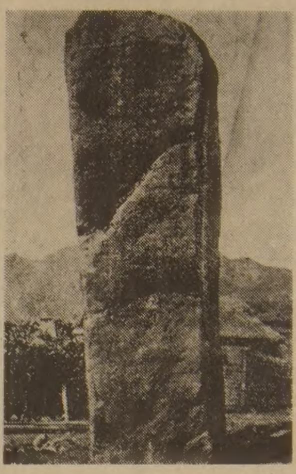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데…

궁금한 北韓의 古代유물

서포 新·舊石器 青銅器고루
高句麗 古墳群의 銘文·벽화

4천년전의 집터·숯이된 낟알
安堅의「龍圖」등 그림·도자기도



◇滿州輯安縣通溝에있는 廣開土大王碑⑤와 76년12월 平壤부근 德興里에서 발굴된 고분벽화。

「유물들은 교환전시하고 공동연구하자」는 李光杓문공부장관의 제의로 북한의유적과 유물이 또다시 우리의 관심을 끌고있다。그동안 북한의 유적과 고분발굴등은 일본및 외국학계와 관심을통해 단편적으로 보도되긴 했으나 항상 아쉬움이 가득했다。金元龍교수(서울大)는 이같은 아쉬움을「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로 표현한다。흘러나오는 자료보다는 유적이나 고적을 직접 답사하며 연구하고 싶다는 아픔이 서려있다。

우리학계가 주로 관심을갖는 북한의 유적은 선사시대유적과 고구려고분관계로 나눌수 있다。북한의 史學은 唯物史觀의 발전도식에따라 많이 왜곡되고 합리화됐으나해방후 우리의 관심을 끌고도 남을 많은 유적과 고분이 발굴됐다。

구석기시대의 유적만도 승리산유적、祥原유적(類猿人骨출토) 등 상당히 많다。북한중앙통신은 지난5월 두만강유역의 咸北 雄基郡屈浦里 서포항유적에서 신·구석기、그리고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이 겹이어 쌓여있는것을 발굴했다고 보도했다。

맨밑에「서포文化」로 알려진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이 깔려있고 그위에 신석기시대의 문화층、그리고 그위에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이 겹쳐있는 모양과 각층의 발굴상황을 상당히 상세히 전했었다。

중앙통신은 지난8월에도 平壤三石구역 湖南里에서 4천여년전부터 2천수백년전의 신석기시대 집터와 청동기시대 집터및 무덤 돌무덤들이 발견돼 4천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고 전했다。이 보도는 불에 타서 숯으로 변해버린 낟알이 나왔다고 전해 쌀재배의 북방전래설과관련、우리의 관심을모았었다。

高麗大 金貞培교수는 구석기시대 유적과 함께 平南·北과 咸南지역에 산재해있는 청동기문화의 여러유적과 철기시대의 墓制인 土壙墓를 직접 살펴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점은 金元龍 교수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선사유적과 함께 우리의관심을 끌고있는 고구려고분은 그동안 일본등을통해 벽화등이 소개되기도 했다。북한은 남북으로 갈린뒤 고구려史에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40기에가까운 고분이 발굴된것으로 전해지는데 유물보다는 벽화가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학자들은 고구려고분에서는 金冠같은 유물이 나오지않은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에게 잘알려진 고분은 고구려15대 美川王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사람의모습을 비롯 大行列圖、中舍圖등의 벽화가 있는 黃海道 安岳郡 五局里의 安岳제3호 고분과 東明王墓、최근에 우리나라에 벽화사진이 소개된 平壤부근의 德興里고분등을 들수 있다。

특히 76년12월에 발굴된것으로 전해진 德興里고분은 銘文과함께 수렵도등 수많은 벽화가 발견돼 학계를 흥분시켰다。벽화중 부인상은 일본 高松塚의 부인상과 비슷하다는점에서 일본학계의 시선을 모으기도 했었다。

이 고분이「幽州刺史」관직을 지낸「鎭」이란 사람의 묘라는 사실이 銘文에서 밝혀짐에따라 주인공의 신분을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북한과 일본의 학자들은「鎭」이 고구려 사람이라고 주장한데반해 金元龍교수는 고구려에 귀화한 중국인이라고 반박했었다。

학자들은 현재북한에서 발굴된 이런 고분과 함께 중공의 협조를 얻어 輯安縣일대의 고구려고분과 선사유적·광개토대왕비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현재 북한에서 발굴된 고분이 고구려가 平壤을 중심으로 옮겨왔을때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의 기술을 위해서는 초창기중심지였던 즙안현일대의 고분에 눈을 돌려야한다는 주장이다。이일대는 지금까지 고분 7基가 발굴되었으며 通溝지역에선 1만여기의 고분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金元龍교수는 북한이 이번제의를 받아들이고 중공까지 협조한다면 고구려미술을 보다정확히 이해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이밖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유적과 유물은 대성산적、安鶴宮址등과 평양박물관소장품등을 들수있는데、특히 安堅의「龍圖」등 많은 繪畵와 도자기등은 거의 소개된바없이 소장하고 있는것으로만 알려져왔다。원래 佛像·陶器類·서화등 북한의 동산문화재는 남쪽에비해 질과 양에서 떨어진다。

한편 중공쪽의 유적중 우리가 보고싶은것은 中山城유적、전국시대고분과 진시황의 陵、漢代의 墓와 隋·唐代의 벽화등 수없이많다。

학계는 이같은 많은 유적과 고분등을 직접보여주지못하면 실물크기의 사진이나모사로라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金元龍교수는『20세기단계에서 생각할것이 아니라 선사시대나 고구려시대의 단계로 돌아가 서로 자료를 교환하는등 공동연구의 자세를 취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金貞培교수도『남북의 자료가 교환되면 우리의 고고학과 고대사의 많은 부분이 보완된다는 점을 북한은 인식해야한다』고 덧붙였다。【李炳日기자】

崔致遠의 東人意識

국제불교학술회의의 柳承國교수 발표

"사람 중에도 東人은 仁人"
「儒·佛·道」思想의 융합 이룩

대한전통불교연구원(원장 金知見)이 주최한 제4회 국제불교학술회의가 지난16·17 양일간 서울新羅호텔에서 개최됐다。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崔致遠과 관련해서 본 華嚴思想과 禪門形成」。

지난76년 전통불교유산의 계발과 역사적주체의식으로 이어지는 전통불교사상의 구현을 위해 설립된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은 78년부터 해마다 국제학술회의를 개최、1회땐「均如大師와 華嚴思想」、2회에는「元曉思想」、3회엔「新羅義湘의 華嚴思想」이라는 주제를 각각 내걸었었다。

이번회의에서 柳承國교수(成均館大)는「崔致遠의東人의식에관한 연구」라는 논제발표에서『崔致遠의 사상과 학술은 이해하기 어려울만큼 다양하며 수준이 높아 설명하는데에따라 그評이 相異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崔致遠은 시와 문장에 뛰어났지만 이보다도 사상가、철학가로서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했다고 말했다。

柳교수는 崔致遠은 당시 불교·유교·도교등 사상전반에 능통했을뿐만아니라 각 宗派의 이질적教理와 논리를 일실에 종합、종횡무진하게 융합했다고 강조하고 그는이와함께 儒·佛·道사상이 전래하기이전의 원형을밝혀 역사적으로 외래사상의 수용가능한 소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柳교수에 의하면 崔致遠은 또『鸞郎碑序』(三國史記 卷四十)에서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玄妙한 道가있으니 이를「風流」라고 부르며 이 風流道에는 儒·佛·道 3敎가 내포되어 모든 생명을 감화시킨다』고 했는데 한국인이 외래사상을 섭취함에있어 이道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柳교수는이어 崔致遠은 특히 東人의식、東人에관한 특이한 견해를 표명하고있다고지적、『道가 사람에게있고 사람중에도 東人은仁人이며 東方之人은 玄妙之道를가지고 있다』고한점을 주목했다。

柳교수는 崔致遠이말한 東人은 바로 우리한국인이었다고 밝히고 崔致遠은 우리민족이 살고있는 東方을 가리켜「君子之鄕、東方世界」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柳교수는 崔致遠의 사상은 논리적으로 사상과 진리의보편성을 인간本源의 바탕에두었으며 이것은 오늘날에도 인간본질의 보편성과 민족전통사상의 正體를 탐구하여현대의 과제와 상황을 통찰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고 결론지었다。【黃】

탁월한 體驗의 小說化

공쿠르賞수상한 뤼시앵·보다르

「안느·마리」는 젊은시절自叙傳
中共·印支戰작품도 같은 系列

小說「안느·마리」로 공쿠르賞을 수상한 뤼시앵·보다르(67)는 자신의 체험을 소설화하는 재능을 가진 작가로 평판되고 있다。공쿠르상을 받은「안느·마리」는 그의 어머니 안느·마리와 함께 살았던 10대~20대시절을 그린 自傳小說이다。

이 소설이외 보다르는 해외특파원으로서 인도차이나 전쟁을 취재하며 겪은 체험을 소재로 3권의 책을 써냈으며、毛澤東 치하의 中共에 관해 2권의 저서를 내기도 했다。그는 그의 中國에서의 성장과정을 그린 소설「領事귀하」로 73년 프랑스 앵테랄리에 文學賞을 수상했었다。

■보다르는 외교관으로 中國領事를지낸 부친을따라 中國에서 어린시절을 보냈으며、부친이 領事로 계속 中國에 머물러 있는동안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어머니 안느·마리를따라 프랑스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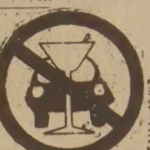
보다르의 공쿠르 수상작「안느·마리」는 中國에서 돌아온후 몸에밴 동양적생활習慣과 사고방식을벗고 서구식생활로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하는 이야기를 소설화한것이다。

공쿠르상 심사위원들은 소설 안느·마리에 대해 주인공의、감정의 변화와 移入이 섬세하고 흥미있게 그려진점이특이하다고 평하고 있다。

그의 부친은 보다르를 자기와같이 외교관으로 만들고싶어 외교관교육을 시켰으나 보다르자신은 저널리스트로서 立身、수십년간 세계의각곳을 다니며 알제리종군기자로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등 프랑스에서 가장 이름높은 해외특파원이 됐다。

그는 주로 취재수첩을자료로 글을쓰며 브라질의 인디언학살 사건을 책으로 써냈다。

보다르는 공쿠르문학상 수상으로 상금 50프랑(약6천6백원)을 받게된다。공쿠르상수상 상금은 1903년공쿠르형제가 처음 제정했을때의 상금 50프랑을 지금까지 78년간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나 수상후 베스트 셀러로서의 運을 보장받기 때문에 세계문학상가운데 가장 화제되는 상의 하나로꼽힌다。【雅治】



李德姬、만들리코바 꺾어

女子프로테니스 예상뒤엎고 8-6

◇한국 唯一의 프로 임기응변의 재치와 스피드에서괄목할만한 수준향상을이룬 국내유일의 프로선수 李德姬。

◇老將분전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70년대초의 명성을 지켜가고있는 33세의노장 로즈마리·카잘스。

세계적인 여자프로테니스 스타인 하나·만들리코바(19·체코)와 로즈마리·카잘스(33·美國) 초청 여자테니스대회가 17일 잠실종합체육관 특설코트에서 개막、국내팬들에게 세계톱랭커들의 수준높은 플레이를 선보였다。

세계랭킹 4위를 마크하고 있는 하나·만들리코바는 비교적 큰키와 날씬한 몸매로 큰 움직임없이 자신의 리치에 닿는 볼에 위력적인 스트로크로 강타、프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식타이틀이나 필적할 상대가없는 탓인지 만들리코바는 두다리를 꼿꼿이 세운채 무성의한 타구를날려 기대이상의 큰실망도함께 던져주었다。

만들리코바는 날카롭고 강한 서브를 가졌으나 첫서브를 번번이 폴트로 놓쳤으며 자신의 타구가 네트에 걸리자 볼을 걷어차버리는등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

첫복식(2세트)에서 카잘스와 한조를 이루어 한국의 李德姬·申順浩에 첫세트를 6-2로 리드했으나 제2세트서는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고전끝에 7-6으로 신승했다。

오히려 프로로 전향한 한국의 李德姬가 모처럼 국내무대서 선전、전코트를 질풍같이 달리며 단식(8게임)에서 예상을 뒤엎고 만들리코바를 리드 8-6으로 승리、괄목할만한 수준향상을 보여주었다。

만들리코바와 카잘스의 단식(3세트)서는 만들리코바가 6-4、6-1로 승리했다。

기대를 모았던 만들리코바와 체코태생 선배 나브라틸로바의 대전은 나브라틸로바의 돌연한 불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날 무료로 공개된 잠실체육관에는 2만명에 이르는 관중들이 운집했다。

복도에서 미처 스탠드로들어서지못한 관중들은 플로어로 통하는 문을 열어 제쳐 잠시 소란을 빚기도했다。

경기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8게임으로 하리라던 복식이 2세트로 진행되는등 갑작스런 변경으로 관중들을 어리둥절케 했으며 만들리코바는 다소 무성의한 경기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첫날전적

▲복식(2세트)
만들리코바·카잘스 2(6-2 7-6)0 李德姬·申順浩

▲단식(8게임)
李德姬 8-6 만들리코바

▲단식(3세트)
만들리코바 2(6-4 6-1)0 카잘스

윔블던테니스收益 百90萬달러로집계

【런던17日聯合】금년도윔블던 테니스대회의 수익금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66만6천1백42파운드(1백15만달러상당)가 늘어난 1백8만6천9백52파운드(1백90만달러)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고 全英론(잔디)테니스클럽회장인 브라이언·버네트씨가 16일 밝혔다。

韓國、印度대파 2連勝

亞洲농구 中共과 先頭

【캘커타17日聯合】韓國은 17일 캘커타에서 속행된 제11회 아시아 농구선수권대회(ABC) 결승리그 2차전에서 印度를 1백11-79로 대파、2연승을 거두고 역시 2승의 中共과 함께 선두에 나섰다。

한편 이날 中共은 日本을 71-60으로、필리핀은 말레이지아를82-78로각각눌렀다。

▲결승리그 2차전전적(17일)

韓國 (2승)	111	50-37, 61-42	79	印度 (2패)
中共 (2승)	71	39-40, 32-20	60	日本 (2패)
필리핀 (1승1패)	82	35-38, 47-40	78	말레이지아 (2패)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대그우드, 어젯밤에자네 봉급을 올려주기로 결심했네!" "야! 믿을수 없는데요!"

"자넨 그럴만해" "아직도 믿을수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아침 마음을 바꿨어"

"이제는 믿어요"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안내광고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집·방세·하숙
집세놓음 DAVENPORT — OLD WESTON RD
3베드룸, 2화장실
☎ : 536-8506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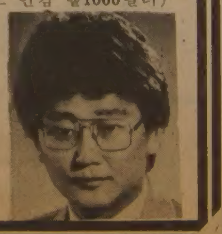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생명의 말씀
CITY-TV : 채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채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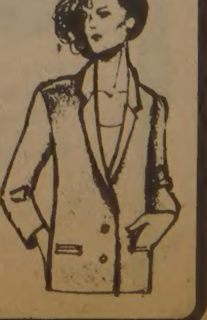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목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매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토타리오 인컴 넷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샵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 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띰플렡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쥬스바 파타임 헬퍼구함
☎ : 438－0403(오후6시연락바람)

CHENILLE 재봉사 구함(경험자 시간당 : $6)
COSMO CRESTING's
☎ : 769－4726

스토아 헬퍼구함 (일요일)
(시간 : 12시～8시)
☎ : 921－0624(다운타운)

도나스샾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오후 4시～밤1시
☎ : 499－4459

"봉재사 급구"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동업자 구함"
중국음식점. 현재 한국인이 경영하고있음
희망자는 시설비 약2만불 정도. 경험유무는 관계없음
☎ : 656－0483 (오후4시이후 연락바람)

에드몬톤에 위치한 자동차수리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주실 남자분 구합니다.
☎ : 533－2364(Mrs. 김)

"봉재사 급구"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버라이어티 스토아 남자 헬퍼구함
단 유경험자에 한함
저녁 4시～8시반까지
39BELSHAW PLACE
☎ : 368－8147

FAST FOOD 햄버거 식당에서 일하실 분을 구함
(BRAMPTON 지역) 유경험자를 우선으로 하나 이런
일에 흥미있는 분. 나이트 쉬프트 우대함
FIRE PIT.(HWY 7 & 케네디 로드, 브람톤)
☎ : 456－2828
ASK : PAUL KIM

사무실 청소하실분 구함(부부환영).
☎ : 446－1431, 291－7500

매니저 구함
도나스 샾과 햄버거샾을 완전히 맡아서
하실분.(약간 보증금 요함)
대가족 원함. 좋은조건
1468 QUEEN ST. W.
직접내방 요함(Mr. 박)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62－0019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비지네스
빌딩＋분리된 3베드룸 방갈로 스카보로지역
좋은 인수조건 모게지 알선가능
CALL : BERNIE SEMELHAGO
☎ : 494－1651, 291－9879
MONTREAL TRUST

여자분이 혼자 하실수 있는 CANDY SHOP 팝니다.
(일요일은 문닫음)MALL안에 있음.
☎ : 278－3975

벡커 후렌차이스 매매
☎ : 231－1740 MRS. 강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T. V. 스테레오 최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스토아. 관광지 중심에 오직
하나의 스토아 총매상 : 약 $400,000(2200스퀘어피트)
이층의 4베드룸아파트. 아스킹 : $149,000＋스탁
CALL : BETTY CLEARY ☎ : 1－705－325－6028
가장 바쁜 곳에 위치한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스토아
총매상 : 약 $380,000 3베드룸 리빙 QUARTER 가
있는 콘크리트 블럭빌딩＋2베드룸 아파트
렌트 : $245— 우체국 : $11,500
아스킹 : $18,400＋스탁
CALL : IRVIN DEGRAW ☎ : 1－705－325－6069
WATER DEAN REAL ESTATE
107 MISSISSAUGA ST. E ORILLIA
☎ : (705)325－6193

매 매
PRIME WEST HILL에 위치한 성업중인 비지니스
아마하 모터싸이클, 스노우 모빌 세일과 서비스
직원이 항상 있음 가격 : $100,000
문의는 꼭 영어로 ☎ : 284－4751(JOAN MANUEL)
A. E. LEPAGE ONT. LTD. REALTOR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 745－5555

급 매
매우 깨끗한 2베드룸 아파트와 3베드룸
타운하우스를 저렴한 가격에 급매합니다.
사거나 팔기를 원하시는분은
Ms. 메리 이바타에게 연락요
☎ : 270－3930
277－2490
MONTREAL TRUST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
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대단히 성업중인 드라이 크리닝 비지네스
를 건강상 이유로 양도코자함.
①금년도 매상 목표액 : $15,000 이상
②금년도 순수익 목표액 : $60,000 이상
☎ : 493－0429 (저녁8시～9시 연락바람)

스토아 급매
멀 안에있는 버라이어티 기프트샵을 급매합니다.
주매상 : 3천2백달러
아스킹 : 3만5천달러
전화 : 223－8805
(MR. 리)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매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에 알맞는 도바코트와 GEARY코
너의 스토아. 경쟁이 없는지역 1200Feet 렌트에 좋은
OFFER를 줌 ☎ : 535－1750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커피샵 매매
리스 : 17년. 렌트 : 450
월～금 영업 영업시간 8시반～6시
의사빌딩 내에 있음
☎ : 767－4653, 447－9736(Mr. Wong)

급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장비일절 최저 가격으로 팔겠음.
☎ : 691－5360 699－2442

①버라이어티(주매상 5천, WESTON)
②버라이어티와 핀볼(주6일, 스카보로)
③그로서리(년매상 $700,000 주6일, 토론토)
☎ : 481－3443, 745－5485(황순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태권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홍수 태권도장(사범 박홍수)
719 YONGE ST
☎ : 961－7100

미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8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헌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악기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진용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취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8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넘파·김

정 촌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50% OFF)
☎ : 465－8167 (MR. 김, MR. 곽)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기 타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오뎅·통닭
☎ : 537－0432 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2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 B) 284-9325 R) 281-1954 Mrs.남

◆◆◆ 빅 · 세븐 선물센타 ◆◆◆

밍크―쇼

교민 여러분을 위한 PRE―**크리스마스 밍크―쇼**를 개최합니다. **최저가격으로 최고급의밍크** 를 사실수있는 기회를 드리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김 영 철 올림

LONDON FOG®

※ 런던FOG
바바리
SALE

날자 : 11월26일(목), 27(금), 28(토)

장소 : 빅 · 세븐선물센타 내(3일간)

◆◆ 40% OFF ◆◆

빅 · 세븐 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TEL : 533―7966